

碩士學位論文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와
교육적 의의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李 智 賢

2008年 8月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와 교육적 의의

指導教授 孫 五 圭

李 智 賢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년 6월

李智賢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8년 8월

<國文抄錄>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와 교육적 의의

李 智 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李世輔는 조선후기 문신이자 왕실의 후예로 총 462수의 고시조 작품을 남긴 시조 사상 최다 작가이다. 그동안 이루어져온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현실비판시조나 애정시조에 치중하여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세보 시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작가의 생애와 19세기 시조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보는 19세기 봉건적 유교 사회가 해체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순탄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세도가인 안동 김씨의 견제를 받고 薪知島에 유배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유배 생활은 이세보의 창작세계에 있어 현실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하였다. 19세기 시조는 도시의 난만한 성숙과 유희의 번성을 배경으로 폭넓은 수용층을 확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歌曲源流 와 南薰太平歌 계열로 구분되는 수많은 가집들이 출현하였으며, 조항·이세보와 같은 사대부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글을 짓는 틈틈이 餘技로 시조를 창작하던 관행 속에서 이세보는 과감하게 우리말로 시조를 창작하여 개인 시조집을 편찬하였다. 이를 통해 이세보의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III장에서는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현실인식에 대해 이세보의 도덕시조, 현실비판시조, 농부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세보의 시조에서도 조선조 초기 관료들의 시조가 가지고 있던 민풍 교화의 효용론적인 경향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으며, 문학을 ‘載

* 이 논문은 200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道之器'로 인식하고 經世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도덕시조에는 유교이념을 내세우며 조선왕조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사대부의 윤리의식이 나타났다. 현실비판시조에는 위민적 현실인식에서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참상을 고발하고, 부패한 관료들의 貪虐을 비판하고 깨우치기 위해 애쓴 목민관의 모습이 나타났다. 농사의 중요성과 勸農을 역설한 농부가에는 이세보가 전통적인 농경적 삶의 양식을 공동체적 삶의 문화로 인식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IV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유배생활의 비애와 애정상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보는 유배지에서 고독과 육체적 고통을 자신의 삶 주변에서 늘상 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세보의 애정시조에는 유교이념 아래에서 사대부들이 금기시하던 '애정'이라는 주제를 인간 본연의 정서로 긍정하고 있었다. 대체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으며, 대책이 없는 슬픔의 과잉 노출은 남훈태평가 계열의 시조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세보 시조는 유교윤리가 전체를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유교윤리의 주제를 벗어나 개인적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바탕으로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중등 국어 교과서와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을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는 현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내용 체계를 검토하여 '자기체험을 통한 전통가치의 전수',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해', '시조문학사의 이해'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유배라는 특수한 체험 속에서 忠孝와 같은 정서를 표출하는 이세보 시조를 통해 조상들의 윤리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세보 시조를 통해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삼정의 문란 등 우리 역사가 근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곡과 모순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이세보 시조는 개화기 시조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어 고시조가 근대를 거쳐 현대시조로 이행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현 교육과정의 국어 ·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이 시기 · 작가 · 주제별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조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 차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대상과 방법	5
II. 생애와 19세기 시조의 동향	7
1. 생애와 창작 배경	7
2. 19세기 시조의 동향	11
3.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	15
III.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현실인식	20
1. 도덕시조의 교훈성	21
2. 위민적 현실인식	30
3. 공동체적 삶의 문화 이해	40
IV. 유배생활의 비애와 애정상사	45
1. 유배생활의 회한과 고통	46
2. 애정상사의 대중성	50
V. 교육적 의의	62
1. 자기체험을 통한 전통 가치의 전수	66
2.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해	69
3. 시조문학사의 이해	72
VI. 결론	78
* 참고문헌	82
* Abstract	86

I. 서론

1. 연구 목적

李世輔(1832~1895)는 조선후기 문신이자 왕실의 후예로 시조집 風雅(大) , 風雅(小) , 詩歌(單) , 風雅(別集) , 別風雅 , 未製本 및 유배일기 薪島日錄에 총 462수¹⁾의 고시조 작품을 남긴 시조사상 최다 작가이다. 이세보의 출현은 그동안 이정보(1793~1766)를 끝으로 사대부 시조가 창의력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통설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19세기 말엽까지 사대부가 시조를 적극 향유했음을 반증하였고, 가장 많은 시조 작품을 남긴 시조 작가가 안민영(1816~?)이라는 시조사를 다시 쓰도록 만들었다.

이세보의 생존 시기에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왕권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세보는 왕족의 일원으로서 왕권이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비판하다가 그들의 미움을 사 薪智島에 圍籬安置되는 정치적 패배를 겪게 된다. 이세보에게 있어 만 3년간의 유배생활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는 현실비판시조를 창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해배된 이후 참혹했던 유배생활의 고통을 잊고자 기녀와의 애정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이세보가 남긴 시조의 주제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²⁾

ㄱ. 愛情 104首 ㄴ. 流配 78首 ㄷ. 現實批判 61首 ㄹ. 遊覽遊興 41首
ㅁ. 稽古 35首 ㅂ. 道德 24首 ㅅ. 紀行 16首 ㅇ. 月令體 19首 ㅈ. 農事 10首

이처럼 이세보는 평시조라는 장르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평시조의

-
- 1) 진동혁은 주석 이세보 시조집 , 정음사, 1985에서 이세보의 시조를 458수 실고 있으며, 여기에 1988년 새로 발굴한 자료에서 1수의 새로운 시조 작품을 발견함에 따라 459수로 확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진동혁, 「새로 발굴된 이세보의 시조집 <別風雅>에 대하여」, 김영배 선생 회갑기념논총 , 형설출판사, 1991을 참조) 그러나 최근 오종각의 서지적 검토에 의하여 3수가 새로이 추가 발견됨으로써 이세보의 시조는 총 462수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참조)
 - 2) 이세보 시조집 風雅 의 최초 발굴자인 진동혁은 이세보의 시조를 내용 주제상 10首 이상 되는 작품들을 헤아려 위와 같이 9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진동혁, 李世輔 時調研究 , 하우, 2000, p. 155 참조.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것은 비단 462수라는 양적 방대함 뿐만 아니라 이세보가 시조 창작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학 세계를 펼쳐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세보가 시조 창작을 단지 餘技가 아닌 전문적인 창작행위로 인식³⁾했으리라는 짐작까지 가능하게 한다.

도시의 발달과 새로운 향유층의 형성으로 사대부 중심의 독점적 성격을 벗어나며 사설시조가 융성하게 된 18세기 시조사는 봉건해체기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19세기로 이행하게 된다. 19세기에는 왕성한 가객들의 활동과 더불어 이세보·조황과 같은 사대부들이 개인시조집을 통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였다. 19세기 사대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은 일반적으로 시조사를 말할 때 17세기 후반 박인로(1561~1642)와 윤선도(1587~1671)를 기점으로 시조의 담당층이 사대부에서 중인층 이하 평민층으로 이동되었다고 보는 통설과도 차이가 있으며, 사설시조가 시조사의 한 축을 차지하며 19세기를 ‘시조의 쇠퇴기’로 보는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중세적인 틀에서부터 막 벗어나기 시작한 18세기와는 달리 19세기는 새로운 시대, 즉 근대를 맞이하기 위한 징후들을 여러 면에서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시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19세기 사대부 시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세보는 평시조라는 시조의 정형 양식을 고집하며 순국문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전대의 사대부 시조에서 볼 수 있는 관념적인 윤리의식을 보이기도 하며, 위민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배생활의 비애를 노래하기도 하였으며, 애정에 대해 솔직하게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평시조라는 양식에 다양한 주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작가가 처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살피고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학 교육에 있어 고전 문학의 당위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미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확인케 하여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 이세보의 시조를 살피는 작업은 근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19세기에 사대부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용되고, 그 다음 세대의 문학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행해 갔는지 파악할 수 있게

3) 박노준,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특질과 그 시조사적 위상」, 어문논집 33, 민족어문학회, 1994, p. 248.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문학사의 발전경로를 이해하고,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세보의 연구는 진동혁⁴⁾에 의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동안 이세보의 시조 6首⁵⁾만이 시조문학사전 과 역대시조전서 에 身元未詳, 年代未詳으로 실려 전해 오다가 1980년 진동혁에 의해 시조집 風雅 가 발견되고 작자를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세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가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일차로 진동혁에 의해 진행되었다. 진동혁은 이세보의 생애를 출생에서 유배 이전까지의 기간, 유배생활 기간, 해배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3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신충범⁶⁾은 진동혁의 논의를 약간 변형하여 제1기는 出系 出仕期, 제2기는 流配 受難期, 제3기는 解配 官僚期로 정의하고, 제1기에 청나라 기행시조와 전주 일대 유람시조, 제2기에 현실비판시조와 유배시조, 제3기에는 지방풍류시조가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작품론적 측면에서 진동혁은 이세보 시조 전체를 현실비판시조, 유배시조, 애정시조, 유람 · 유흥시조, 농사시조 등 9개의 주제로 나누고, ‘신랄하게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담하게 애정을 묘사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박노준⁷⁾은 ‘관념적이고 보수적인 사대부로서의 分의식에 입각한 것과 개성적이고 정서적인 성향에 입각한 현실적인 것’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것은 김준옥⁸⁾에 의해

-
- 4) 진동혁, 「시조집 풍야 의 작자연구」, 한국학보 20, 일지사, 1980.
 -----, 「시조집 풍야 의 시조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86, 국어국문학회, 1981.
 -----, 「이세보 시조의 월령체 시조고」, 국문학논총 10, 단국대 국문과, 1981.
 -----,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논문집 15, 단국대 국문과, 1981.
 -----, 「이세보의 기행시조 연구」, 어문논집 23, 고려대 국문학연구회, 1982.
 -----, 「이세보 시조의 애정시조 고찰」, 동양학 1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
 -----, 「이세보 시조의 철종기의 현실비판 시조고」, 동방학지 30,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2.
 -----, 주석 이세보 시조집, 정음사, 1985.
 -----, 「새로 발굴된 이세보의 시조집 別風雅 에 대하여」,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91.
 -----,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 5) 이세보시조집, 단국대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85, pp. 448~450.
 6) 신충범, 「이세보 시조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박노준, 「이세보시조의 ‘分’의식과 情緒表出의 두 局面」, 동양학 20,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0.
 8) 김준옥, 「이세보 시조의 두 경향과 문학사적 위치」, 시조학논총 13, 한국시조학회, 1997.

서 ‘관료적인 교화의 시조’와 ‘탈관료적인 개성의 시조’라는 두 가지 경향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실비판시조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강혜숙, 박길남, 김은희 등⁹⁾에 의해, 유배시조는 박길남¹⁰⁾에 의해 연구되었다. 애정시조는 최인숙, 박노준, 윤정화 등¹¹⁾에 의해, 농사시조는 윤영옥 등¹²⁾에 의해 각각 연구되었다. 김난숙¹³⁾은 이세보 시조의 다양성을 유배시조, 충효시조, 현실비판시조로 나누어 고찰하고 상호인식과 현실인식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오종각¹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이세보 시조집에 관한 서지적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459수로 학계에 알려진 작품 수를 462수로 확정하였으며, 시조집의 편집체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였다.

이세보 시조의 소재 상징성에 관한 연구로는 이동규와 진재식의 논의를 들 수 있다.¹⁵⁾ 이동규는 이세보 시조에 나타난 조류와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에 대해, 진재식은 자연물인 꽃, 나무, 새 등의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동연, 고미숙 등은 19세기 시조의 변모 양상과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세보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의 시조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였다.¹⁶⁾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는 시조집의 편집 체제를 비롯하여 작가와 작품에 관한 연구, 소재 상징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19세기 시조사 흐름 속에서 그 위상을 규명하는 연구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나 애정시조 연구에 치중하여 다양한 문학세계와 위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아쉽게도

-
- 9) 강혜숙,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길남,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 한남어문학 15,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 1989.
 김은희, 「이세보 시조연구 - 현실비판시조를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0, 1999.
- 10)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한남대학교 국어국문과, 1992.
- 11) 최인숙, 「이세보의 애정시조에 관한 일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박노준,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특질과 그 시대사적 위상」, 어문논집 33, 고려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94.
 윤정화,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집 21, 한국문학회, 1997.
- 12) 윤영옥, 「이세보의 農歌攷」, 시조학논집 13, 한국시조학회, 1998.
- 13) 김난숙, 「이세보 시조의 다양성과 대상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4)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5) 이동규, 「이세보 시조의 동물 상징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진재식, 「이세보 시조연구 - 주제분석 및 자연소재 ‘꽃’, ‘나무’, ‘새’의 분석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6) 정홍모, 「19세기 사대부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동연, 「19세기 시조의 변모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고찰하고, 이세보 시조가 교육적으로 수용될 때 어떠한 의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세보 시조집 (영인본, 1985)과 주석 이세보시조집 (정음사, 1985)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세보가 사대부로서 유교적 실천윤리를 제시하는 모습과 목민관으로서의 현실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도덕시조와 현실비판시조, 농부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유배생활에서 오는 비애의 정서와 솔직한 애정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유배시조와 애정시조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등교육과정의 국어와 문학 교과서 시조작품 수록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서와 18종 문학 교과서를 부차적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된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이세보의 문학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역사·전기주의 비평방법을 원용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품 창작배경 및 19세기 시조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이세보의 국문 시가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문학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세보의 구체적인 시조 작품들을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현실인식’이라는 주제 하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이세보는 조선 후기 왕족 사대부로서 무너져 가는 사회윤리를 바로 세워 보고자 忠·孝 등 三綱五倫을 강조하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도덕시조에 나타난 사대부의 윤리의식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탐구하고 그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에 나타난 위민적 현실인식을 살펴본다. 19세기

후반 왕족이며 집권 관료의 일원이라는 신분으로 현실의 矛盾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권농을 역설하고 농민들의 고초를 그리고 있는 농부가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인식 양상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유배생활의 비애와 애정상사’라는 주제 하에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유배지에서서의 悔恨과 苦痛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주자학에 의해 애정이란 주제를 금기시 해왔던 조선사회 속에서 이세보의 애정시조에 남녀 간의 애정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세보 애정시조의 대중적 성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학관련 교육 목표에 대해 논급하고, 中等 국어 교과와 18種 문학 교과서의 시조 작품 수록 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 시조작품 수록 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시조 교육을 통해 우리 문학사의 발전경로를 이해하고, 작품 형식과 의미 구조에서 표출되는 표현 미학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우리 고유의 시가 문학적 전통을 이어받으며, 문학 문화 발전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생애와 19세기 시조의 동향

1. 생애와 창작 배경

작가의 전기적 사실 혹은 체험은 작품 창작의 토양이 된다. 작가의 주관이나 체험을 통하지 않은 문학 작품의 창조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보의 생애와 작품 창작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론은 작품이해의 한 방법이 되며, 문학 교육의 가치 목표인 인간 이해 방법이 되므로 문학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세보(1832~1895)는 1832년(순조 32년) 6월 21일에 父 李端和와 母 海平尹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첫 이름이 世輔이고 철종 2년(1851) 慶平君 봉작을 받은 뒤 皓로 개명하였고, 유배지 薪知島에서 放免된 뒤 고종 5년(1868)에 다시 寅應으로 개명하였다.

이세보는 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왕실의 후예로서, 宣祖의 셋째 아들 義安君 瑊의 9대 孫이며 仁祖의 實弟인 綾原大君 甫의 8대 孫이다. 그의 집안은 왕족이었으나 후대로 내려갈수록 당대 왕실과의 촌수가 멀어지면서 그의 高祖인 厚瑾 때부터는 君이나 正의 봉작을 받지 못하고 蔭官을 지내는데 그쳤으며 祖父인 濟魯 때에는 그것마저도 끊겼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왕권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집안은 무척 빈한하였다. 유배시에 그가 기록한 薪島日錄 은 그가 14세에 연안 김씨에 장가든 뒤에도 무척이나 어려웠던 가정형편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다.

십스의 이르러 취쳐헌 후의 몸을 외가의 가 부쳐 이우흐미 만토다. 집이 간난흐
미 속슈지공이 어렵고 상산흐미 전묘를 다스릴 슈 업또다.¹⁷⁾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던 이세보는 20세 되던 해(1851, 철종 2년)에 豐溪君 塘의 後嗣가 되어 이름을 皓로 개명하고 종2품 昭義大夫가 되었고, 철종은 慶平

17) 薪島日錄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p. 68에서 인용)

君이라는 爵號를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親授한다. 이로써 철종과 흥선대원군의 재종제(6촌간)로 왕실의 근친이 되었다. 그의 封爵은 집안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장남인 이세보가 이렇게 慶平君이라는 爵號를 받자 父 李端和는 벼슬길에 올라 재령현감, 순창군수 등을 지냈다. 寒微한 왕족이었다가 出系를 통하여 철종의 근친이 된 이세보는 같은 해 9월에 중의대부 부총관(종2품), 12월에는 崇憲大夫(정2품)가 되었다. 그리고 21세에는 宣德大夫(종1품), 22세 때인 1853년(철종 4년)에는 顯祿大夫(정1품)까지 올라 철종의 수라를 監膳하는 직책까지 맡았고, 26세 때에는 冬至謝恩正使가 되어 淸에 다녀오기도 했다. 비록 장가든 후에도 家産이 빈한하여 외가에서 지낸 적이 많았으나 이때까지의 청년기는 비교적 순탄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이세보가 살았던 시대는 정치·사회 현상이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19세기 조선왕조는 왕실 戚族에 의한 세도정치가 왕실의 권위를 압도하고 있었다. 정조 이후 겨우 11세인 군주 純祖(1800~1834)의 등극으로 시작된 세도정치는 순조에 이어 헌종, 철종까지 3대에 걸쳐 내려온 외척에 의한 一黨政治였다. 純祖代에는 安東 金氏가, 憲宗代에 와서는 豐壤 趙氏 일가가, 그리고 哲宗代에는 다시 金汶根을 중심으로 한 安東 金氏가 다시 실권을 장악하였다. 세도정치기 정치현상의 특징은 어린 왕의 즉위에 따른 垂簾聽政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수렴청정을 한 純祖代 貞純王后, 憲宗과 哲宗代 純元王后 등은 先王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정국 운영의 기본 방향과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 실제 운영은 친정 가문의 정국 주도를 위한 정책을 주로 이끌어 내는 데 불과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때로는 先王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¹⁸⁾

세도정치 하에서 지배체제는 백성의 생활과는 유리되며 당파와 뇌물이 정치의 기초를 흔들며 놓았다. 이에 중앙에서는 능력 본위의 과거가 시행되지 못한 채,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였다. 그 결과 지방 관리는 문벌세도 가문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고, 지방수령의 부정을 규찰하기 위하여 파견된 암행어사도 세도가의 인척인 탐관오리를 처벌할 수 없었으며 자신도 부정에 가담하는 사례마저 없지 않았다. 이세보보다 60여 년 전에

18) 洪政院, 「哲宗代 勢道政治 研究-安東金氏의 執權과 그 構造的 特性」,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 5.

활동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이러한 난국에 대하여 “어느 하나 털끝만한 것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고, … 이제 개혁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나라를 망칠 것이다”¹⁹⁾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一黨政治인 세도정치가 횡행하던 시기에는 잘못을 비판하는 반대당을 갖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치는 갈수록 퇴폐일로를 걷게 되었다. 중앙 정치 기강의 해이와 혼란은 급기야 철종대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衙前이나 鄉任들의 백성 수탈 등은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고질화된 병폐였다. 난국을 타파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는 백성들에게 무관심과 반감의 소지를 남겼고, 백성들이 지배층의 무능에 반감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게 되었다.²⁰⁾ 백성들은 점차 최저생계조차도 유지가 어려워져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결국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농민봉기는 순조 즉위 직후부터 경상도 인동(1800년), 함경도 단천·북청(1808년), 황해도 곡산(1811년) 등지에서 터져 나와 홍경래 난(1811년)을 초래했으며, 진주에서 시작된 진주민란(1862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72개의 군현이 여기에 동참하기에 이른다.

이세보가 封爵과 함께 여러 관직에 임용되면서 순탄한 청년기를 보내다가 29세 때인 1860년(철종 11년)에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안동 김씨 세도정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 발단은 철종 11년 3월 12일에 시행한 庭試에 이세보의 동생 世翊(宅應)이 擢第하자 철종이 世翊에게 翰林을 除授하는 데에서부터 일어났다. 철종이 世翊에게 翰林을 除授하자 안동 김씨 측에서는 이세보가 철종과 매우 친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으리라 보고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자 이에 흥분한 이세보가 金左根과 金汶根 형제의 횡포를 논하여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데, 평소 철종의 종친 중 가장 주목되던 이세보를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안동 김씨는 세력을 총동원해 이세보를 탄핵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철종은 이세보에게 유배를 보내야 할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 없고, 또 유배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에 “경평군 皓는 言語를 조심하지 않아 駭忘함이 지극하니, 門黜의 형전을 시행토록 하라”²¹⁾는 敕를 내렸으나 연이어 이세보를 탄핵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리하

19) 與猶堂全書 5, 「經世遺表」,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 及今不改 其必亡國.

20) 김한식, 實學의 政治思想, 一志社, 1985, p. 25.

여 어쩔 수 없이 뜻을 바꾼 철종은 이세보를 유배 보내게 되는데, 이로써 그는 爵號도 빼앗기고 1860년 11월(철종 11년)부터 1863년 12월(고종 즉위년)까지 康津 薪知島에서 쓰라린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양부 豐溪君과의 부자관계도 끊기고 말았고, 비변사까지 동원되어 이세보가 모은 재산이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모아진 것이라며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정치적 패배를 겪게 되었다.²²⁾ 이세보의 유배는 표면상으로는 동생 관직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한 이세보의 행위가 안동 김씨 세도가의 미움을 사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세보는 薪知島에 圍籬安置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유배 생활의 처절한 고통은 薪島日錄 에 소상하게 드러나 있다.

누우며 안즈며 간신이 밤을 식여 아참의 이러나니 동창은 비록 시엿쓰나 방구역은 오히려 어둡더라.

남방의 씨는 더위 즈고로 유명이라. 모진 벼 스오나온 불꽃 가운데 숨쉬이기를 헐떡이며 흥노상의 안진 것 갖고 짜히 또한 비습하니 누기는 올라와서 방들의도 물리 난다.

벽암과 진에등속은 빅쥬로더 벽의 들녀 금혀어도 할 슈 업고 모기와 깔다귀 소리는 흑야의도 저즌 갓으며 날너도 흐릴업네. 안기와 장기는 스면으로 예웨쓰니 지척도 불변흐거이와 독한 괴운과 악헌 너음시가 스름으로 하여금 호흡을 통치 못하니 스름이 철석이 아니여든 엇지 슬기를 도모하리오.²³⁾

이세보의 시조집에는 작품의 年代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분명하지 않지만 유배시조와 현실비관시조 등 그의 시조 대부분이 薪知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유배 시절의 혹독하고 쓰라린 고통은 그의 문필생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정치적 패배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언제 살아서 다시 돌

21) 哲宗實錄 卷十二. 十一年 十一月 二日(辛卯)條에 慶平君皓 不慎言語 駭妄極矣 施以門黜之典.

22)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상), 청년사, 1990, pp. 120~121.

23) 薪島日錄 (각각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p. 257, p. 262, p. 264에서 인용)

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과 그로 인한 체념, 추위와 더위, 해충과의 싸움, 生活 苦 등은 이세보 자신에게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세보는 이 시기에 자신의 생활 기반이었던 관료사회의 부패와 부정,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백성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시조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실비판시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게 된 趙大妃는 이세보를 향리로 放逐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그러나 이 전교는 곧바로 반포되지 못하고, 세도정권 측 대신들의 12번에 걸친 반대 聯劄와 兩司의 우두머리가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어 이세보의 滿 3년간의 流配生活은 끝나게 되었다.

고종의 등극과 대원군의 執政으로 쓰라린 유배생활에서 풀려난 이세보는 비록 종친으로서의 爵號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어도 1865년(고종 2년)부터는 다시 순탄하게 관직생활을 누리게 된다. 1865년 부총관을 시작으로 1866년 그의 나이 35세에 병조참판이 되었으며, 계속해서 형조참판, 공조참판, 호조참판, 여주목사, 개성 부유수 등 각종 관직을 두루 겸하게 된다. 解配 후 官界 진출은 고종과 대원군의 후원으로 탄탄대로를 걸었고, 유배시기의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다시 심신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세보의 시적 관심은 사회적 현실에서 눈을 돌려 서정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다수의 애정시조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세보는 반석과 같이 든든한 官界 생활을 하다가 그가 64세이던 1895년(고종 32년) 8월 20일에 明成皇后가 坤寧殿에서 변을 당하자 통곡하다가 병이 되어 같은 해 11월 23일 卒하였다.

2. 19세기 시조의 동향

19세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변동요인들로 인해 유교적 봉건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새로운 의식들이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의식은 문학에서 그대로 노정되는데,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정서의 표출이 변모되어 봉건적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일군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전기의 사대부 양반 계층은 ‘시조’라는 형식을 통해 유교적 질서와 관념적인 세계를 노래했다. 그러나 조선후기를 맞이하면서 시조에 대한 인식과 구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조선후기 중에서도 19세기는 18세기 이래 진행된 봉건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술 활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물질 기반을 확보하여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조 주체로서 독립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곧바로 중세의 이데올로기적 미적 규준이 무너지가고 근대로 전환해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변화의 특징은 첫째, 서울을 비롯한 상업도시의 발달에 힘입어 여항 예술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는 점, 둘째, 그 주역은 도시를 배경으로 부를 축적한 여항인이라는 점, 셋째, 그들이 예술에서 추구하는 미학은 도시 대중의 유희문화적 통속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⁴⁾

19세기 시조의 변성은 물질 기반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즉 시조가 18세기에는 주로 중인계층 및 한정된 상층 애호가들의 지원 속에서 향유, 유포되었던 것에 비해 19세기에 들어서면 위로는 대원군을 비롯한 왕실에서, 아래로는 저층의 여항인까지 폭넓은 수용층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도시의 난만한 발전과 그를 통한 유희공간의 비약적인 확대로 가능했다. 세도정권의 등장으로 민중에 대한 수탈은 점점 가혹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 18세기 이래 증가된 생산력은 도시의 난만한 성숙과 유희의 번성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²⁵⁾ 유희의 번성은 시조 수용층을 두텁게 하였으며, 시조 수용층의 확대는 미의식의 변화를 수반하여 사대부적 미의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민적 미의식, 즉 도시 대중의 유희문화적인 통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19세기는 ‘가집 편찬의 시대’라는 명칭을 받을 만큼 다수의 가집이 출간된 시기였다. 19세기에 편찬된 가집들은 취하고 있는 음악적 성격에 따라 歌曲源流 계열과 南薰太平歌 계열로 구분된다. 즉, 가곡원류 계열의 가집들이 당대 최고의 가객인 박효관과 안민영이 ‘연회용 전문 공연 음악으로서의 가곡창’을 위해 편찬한 것인 반면, 남훈태평가 계열의 가집들은 편자가

24) 김학성,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詩歌史와 藝術史의 相關양상 II』, 2002, p. 136.

25)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p. 99.

대개 미상인 채로 ‘대중적 풍류음악으로서의 시조창’을 위주로 매우 소박하게 짜여진 것이었다.²⁶⁾ 이렇게 음악적 성격에 따라 가집들이 분류되는 현상은 봉건말기의 시조가 내부적으로 뚜렷이 분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가곡원류 나 남훈태평가 계열에 실린 작품들은 그 음악적 성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미적 방향은 봉건적인 미의식을 벗어나 새로운 사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곡원류 나 남훈태평가 계열의 작품들 중 전대 시조의 특징인 忠·孝 등 전통적으로 등장하던 주제가 미미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사랑과 그리움, 무상과 취락의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왕성한 가집의 출간’이라는 특징에 더해 19세기 시조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세보와 조황과 같은 사대부들이 개인가집을 통해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의 경우에도 이정보와 위백규 등의 사대부들이 등장하여 작품의 미학적 차원에서도 그 나름의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가집을 통해 우리말로 작품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것은 19세기에든 사대부시조의 전통이 이어졌고, 새로운 시조사 지형 속에서 나름의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趙樞(1803~?)은 지극히 한미한 가문의 양반으로 벼슬살이를 전혀 하지 못한 영락한 사족이었다. 조황은 전형적인 사대부의 성리학적 이념을 고수하면서 밀려드는 서학에 맞서고, 내부적으로는 부패해 가는 봉건현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지향과 이념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조황의 개인가집인 三竹詞流 에는 111수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가집은 『人道行』, 『箕裘謠』, 『酒老園擊囊歌』, 『秉彝吟』, 『訓民歌』로 이루어졌는데, 항목별로 작품을 나누어 싣고 한역을 첨가하고 있다.²⁷⁾ 이러한 가집의 구성은 인간 본성에 대해 노래하는 근원적인 원론에서부터 차차 구체화하여 오류를 제시하며 실천적인 윤리로 변화해 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조황이 매우 뚜렷한 성리학적 이념 하에 시조를 창작하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26) 이동연, 『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 p. 180.

27) 고미숙, 앞의 책, p. 247.

또한 삼죽사류 는 가창을 전제로 한 가집은 아니었으나 음악적으로 본다면 가곡창의 오장 방식을 취함으로써 19세기 시조사의 커다란 흐름 중 가곡창 지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항이 시조 창작에 있어 가곡창에 친숙하였음은 『酒老園擊襄歌序』의 다음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나는 노래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으나 부를 수는 없다. 대개 節奏의 중요한 곳을 알고 있으니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대개 한 편은 다섯 章인데 陰陽을 번갈아 唱하여 五行이 차례로 이루어진다. 넓고 넓어 천지자연의 오묘함이 있으니, 진실로 道있는 자라면 이것을 마음에서 터득하여 입으로 표출하게 된다. 어느 것이든 처음에는 七言 金聲으로 發하고 陽이 陰보다 선행한다. 두 번째는 八點 木聲으로 잇고 陰이 陽에 어울린다. 칠, 팔이 세 번째에서 서로 접하되 음양이 합하여 水聲이 된다. 四章은 三點 火聲으로서 禽三의 炎上을 본떠 길게 말한다. 다섯 번째는 土聲으로서 음양을 본떠 마지막을 이룬다.²⁸⁾

가곡창의 오장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입각해 金-木-水-火-土聲의 이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의 창법을 천지자연의 이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조항 자신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가 가곡창을 즐겨 듣고 그것에 심오한 의미를 덧붙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 점은 오로지 시조 창법에 맞추어 작품을 창작했던 이세보의 경우와 대비된다.

조항의 가집 전편에 걸쳐 부분 부분 보여주는 봉건말기 모순에 찬 현실에 대한 인식 등은 19세기 중엽 이후 사상사의 한 흐름을 형성한 위정척사파의 모습으로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³⁰⁾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오로지 성리학적이념으로 대응했던 점은 그의 이념이 지닌 현실대응력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조항과 달리 시조창법에 맞추어 작품 창작을 했던 이세보는 순한글 표기로 일관하며 현실의 모순에 대해 적나라하게 고발·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28) 「酒老園擊襄歌序」, “且吾於歌也 能於耳而不能於喉 槩識節奏之肯綮 請爲子言之蓋一篇五章 陰陽迭唱 五行序作 洋洋有天地自然之妙 誠有道者之得於心而發諸口也 何則 初以七言 金聲以發之 陽先於陰也 二以八點木聲以繼之 陰和於陽也 七八相接於第三 而陰陽合以爲水聲 四章之三點 火聲以長言象禽三之炎上 第五之序以土聲 體陰陽之成終”

29) 고미숙, 앞의 책, p. 253.

30) 고미숙, 위의 책, p. 261.

이세보는 왕실의 일원이자 높은 관직을 두루 지냈으면서도 고급예술이 아니라 시조양식의 대중화와 다원화의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계급적 처지와는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왕족이며 상층관료라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으면서도 고급의 전문적인 예능인들과 교류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게서 유행하는 류의 작품 성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가 시적 표현욕구에 의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게 만든다. 이세보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 점을 매우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격모르고 지은 가스 삼백여편 되단말가
 눅힐데 못눅히고 낫출데 못낫쳤으니
 아마도 훗스름의 시비는 못면헐가 (風雅 416)

이세보는 그의 개인 가집인 풍아 跋文에서도 “노리를 지어 기록하나 장단고저를 분명히 좇지 못했스니 보난 스름이 짐작하여 불가호노라”라고 하여 자신이 음악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견양에서 나온 언급이며, 그 이면에는 시조의 음악적 실현보다는 시적 표현 그 자체에 대해 남다른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다.³¹⁾

이세보나 조항이나 둘 모두 평시조라는 형식을 고수함으로써 평시조 선호라는 19세기 상황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리학적 이념만으로 무장한 채 그에 대한 열정을 토로하는데 주력했던 조항이 19세기 시대 변화에 둔감했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세보는 시조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다각적인 국면을 지니면서 평시조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세보 역시 왕족 사대부로서 성리학적 이념을 드러낸 작품들도 남기고 있으나, 그보다는 104수라는 다량의 애정시조를 남김으로써 19세기 시가사의 구도인 여항-시정문화와 관련된 대중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세보 시조에 대해서는 III·IV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

31) 고미숙, 앞의 책, pp. 268~269 참조.

이세보는 조선왕조를 마무리하는 19세기 중 · 후반에 사대부이면서도 우리말로 시조를 창작하여 개인시조집을 엮어 내었다. 이세보의 개인시조집이 갖는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이것이 최초의 우리말 시문집이라는 점이다.³²⁾ 과거 시조는 사대부 장르로 발전해 오는 동안 언제나 漢詩 하위장르로 평가받았을 뿐 본격적인 문학장르로 우대받은 적은 없었다.

대표적인 조선 중기 시조작가 申欽(1566~1628)은 시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중국의 노래는 風雅를 갖추어 載籍에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歌는 단지 賓筵之娛하기에만 족하고 風雅載籍으로 사용한즉 적당치 않다. 대개 語音이 다름이라. 중국의 音은 말(言)이 文이 되나 우리나라 音은 번역되기를 기다려야 文이 되므로, 우리 동방에 才彦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樂府 · 新聲처럼 전해지지 않았다.³³⁾

말이 곧 글이 되는 중국의 노래(樂府 · 新聲)는 문자화되어 기록된 반면, 우리나라 노랫말은 번역을 거쳐야 문자화되기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신희 자신이 30수의 시조를 남기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문자란 어디까지나 한자이며 본격 문학은 한시일 따름이다. 위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신희는 “한시를 짓는 여가에 방언으로 지어 가락을 맞추고 우리말로 기록한(輒刑詩章而有餘 繼而以方言腔之而記之以諺)” 장르로 시조를 이해하고 있다. 가창을 고려하기는 해도 우리말로 기록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는 시조를 “시골의 노래일뿐 본격 시가 되지 못하며 유희에서 나온(此僅下里折楊 無得於騷壇一斑 而其出於遊戲)” 장르로 평가할 뿐이었다. 기록된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기록된 시인 시조는 본격문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문학의 주도권을 항상 한문문학에 박탈당한 채 국문학이 言志로서의 시는 한 시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오직 永言으로서의 歌를 음악의 그늘 밑에서 전수하면

32) 엄밀히 말하자면 최초의 국문시가집은 18세기에 간행된 성주본 松江歌辭 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송강 자신이 엮은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 의하여 엮어진 자료라는 점에서 19세기 개인시조집과는 구별된다. (이동연, 앞의 책, p. 19 참조)

33) 申欽, 放翁詩餘序,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籍即否焉 蓋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故 我東非才彦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위 인용문은 珍本 靑丘永言 에 수록된 것으로, 심재완,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p. 1250에서 인용.

서 겨우 그 명맥을 이어온 문학사적 상황³⁴⁾에서 사대부들의 국문시가에 대한 변
호가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조선 후기 학자겸 시평가인 洪萬宗(1643~1725)
이 문학평론집이라 할 수 있는 旬五志 에서 국문학의 가치에 대해 논한 글이다.

우리 조선인이 지은 가곡은 거의 방언을 쓰되 간혹 문자를 섞는다. 대부분 언문
으로 쓰여 세상에 전승된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풍속에 따른 것이므
로 어쩔 수 없다. 그 가곡은 설령 중국이 악보에 비견될 수 없으나 불 만한 것
과 들을 만한 것들이 있다. 상촌집을 보면 그가 지봉의 조천록 가사에서 ‘중국의 이른
바 가사는 곧 고악부의 신성으로서 관현에 올린 것들이다. 우리 나라가 문자의 협
조를 받아 변두리 말로 발성함이 비록 중국과 다르나 그 정취의 경지나 宮商을 다
해 諧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詠歎淫佚케 하고 손발로 춤추게 하는 점에서는 하나
의 결과에 이르게 한다’하였으니 믿을 만하고 믿을 만하도다.³⁵⁾

이것은 우리말 노래의 가치와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글이다. 간혹 한자를 섞어
만든 조선의 노랫말이나 노래가 결코 중국의 것에 비해 비루하거나 저속할 수
없다는 시가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듯 洪萬宗을 비롯하여 金得臣, 金萬重,
燕岩 등 소수의 사대부들은 한시와 우리말 가요가 한가지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국문시가에 대한 당대의 편견이나 폄시의 관점을 수정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정연하게 논리화한 이론을 구체화하는 데서
중지해 버렸다. 즉 우리말 시가에 대한 변호의 이론에는 굉장한 노고와 誠力을
바쳤으나 실제로 자신들의 문예적 욕구를 우리말로 감행하는 일에는 소심했던
것이다. 국문시가의 의의와 가치를 발견하고 천명하는 단계에서 그들은 만족해야
했다.

당시 시조의 위상은 문헌창작방식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조선 전 · 중기 시
조는 대체로 한문 문집의 부록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³⁶⁾ 이는 사대부들이 한문으
로 글을 짓는 틈틈이 餘技로 시조를 창작하던 관행 및 사대부들의 시조 인식 수

34) 金玉順, 「歌曲源流系 作品集의 편찬의식에 관한 考察」, 이화어문논집 8, 1986, p. 326.

35) 我東人所作歌曲 專用方言 間雜文字 率以諺書 傳行於世 盖方言之用 在其國俗 不得不然也 其歌曲 雖不能與
中國樂譜比并 亦有可觀而可聽者 按象村集 其書芝峯朝天錄歌詞曰 中國之所謂歌詞 卽古樂府新聲 被之管絃者
是也 我國則發之蕃音 協以文語 比雖與中國異 而若其情境 咸集宮商諧和 使人詠歎淫佚 手舞足蹈 則其歸一也
云 信哉信乎. 洪萬宗, 旬五志 .(韓國의 思想 大全集 24 , 李翼成, 同和出版社, 1977, p. 467)

36) 심재완, 時調의 文獻的 研究 , 세종문화사, 1972, p. 2 참조.

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세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우리말로 시조를 창작하여 개인시조집을 편찬하였다. 이세보의 문학사상이나 시조관을 엿볼 수 있는 여타의 기록물도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의 개인 시조집 『風雅』에도 序跋이 없어 작품 창작 의도나 시가관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세보의 시조집 편찬은 바로 그의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風雅’는 일반적으로 漢詩文集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이것을 자신의 국문시조집 題名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세보 시조집에 관한 서지적 검토를 한 오종각의 연구에 따르면 작품의 표기에 있어서도 薪島日錄, 風雅, 風雅別集, 詩歌單 등은 순한글표기이며, 나머지는 한자를 併記했을 뿐이라고 한다.³⁷⁾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이세보가 우리말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으며, 시조시를 일상문학으로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전시대 사대부들이 한시 또는 한문 문장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동시대의 가객 안민영과 향촌 재지사족 조황 역시 개인시조집을 편찬하였으나, 서·발 및 본문 중 한문구는 그대로 한자로 적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왕족 사대부인 이세보의 국문 문학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였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세보는 정통 유교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으므로 국문 문학에 반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462 수라는 방대한 양을 우리말로 창작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 작가들이 그들의 전유물인 한시를 통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를 즐겨할 때, 이세보는 우리말로써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는 당대의 실학자 정약용이 자주적 조선시론을 주창하면서도 국문시가를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³⁸⁾을 생각할 때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조 여느 사대부들과 같이 다산이 말하는 시란 한시를 일컬음이며, 다산이 소위 ‘조선 시’를 제창했던 것도 한시의 경우였다. 그런데 정통 유교교육을 받은

37)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48 참조.

38) 이복규, 「박지원과 정약용의 대비적 고찰」, 東方學 第2輯, 韓瑞大學校 東洋古典研究所, 1996, pp. 120~124 참조.

왕족이자 사대부인 이세보는 한시가 아닌 시조를 자신의 사상과 정감을 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진정한 조선시의 창달이며, 그의 모국어 의식, 자아의식, 주체의식 등이 그 누구보다 투철했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이세보의 시조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바, 당대 사대부들이 관습적으로 한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개탄의 내용을 표현할 때, 그는 국문으로 시조라는 장르를 통해 현실비판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시조의 시적 기능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Ⅲ.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현실인식

이세보는 왕실의 후예로서 出仕와 流配, 그리고 解配에 이르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시조 짓기를 생활화하였다. 문학이란 삶의 구체적 작용인 작가 의식의 표현이며 체험의 반영인 만큼 이세보의 流配와 解配는 그의 시조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안동 김씨 세도에 의한 만 3년간의 薪智島 유배 생활은 이세보의 창작세계에 있어 정치적 패배와 좌절감, 그리고 현실과의 갈등과 비판의식을 갖게 한 시기였다.

이세보는 삼정의 문란과 진주농민항쟁(1862년), 강화도 사건(1876년), 갑신정변(1884년) 등의 사건이 일어난 혼란과 충격의 격동기를 살았다. 이 시기에는 조선 왕조의 창건 이래 굳건하게 통치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던 주자학이 그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어 실학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조선 말기의 혼란상은 자연히 왕족이자 사대부 시조작가인 이세보의 작품 속에 깊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세보는 왕족 사대부로서 혼란한 말기적 사회 현상으로 무너져 가는 국가 기강을 바로세워보고자 유교이념을 내세우며 조선왕조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들의 貪贓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곤궁해지자 현실비판시조로써 관료들을 비판하고 권계하는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세보의 시조에서도 조선조 초기 관료들의 시조가 가지고 있던 민풍 교화의 효용론적인 경향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으며, 문학을 ‘載道之器’로 인식하고 經世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세보의 이러한 문학관은

風雅 라는 그의 시조집 題名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風雅’란 좁게는 樂府詩를, 넓게는 詩經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노래’로 인식되던 한시장르를 말한다. 유몽인은 “시란 風敎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곧바로 사물의 물색만을 읊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뛰어난 시인은 시를 모아서 엮은 뒤 風雅라 하였다”³⁹⁾고 하며, 風雅 에 담긴 시가 정치, 사회현실과의

39) 유몽인, 어우집 3, 景文社, 1989, p. 23.

〈詩關風敎非直哦咏物色耳古者木鐸者采之而載之風雅〉

관계에서 사회풍교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또한 유희는 “대체로 教化에 의해서 한 나라를 잠재우는 것을 ‘風’이라 하고, 風俗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것을 ‘雅’라고 한다”⁴⁰⁾며 시의 목적이 세속을 교화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風이라는 것은 민속가요의 시이다. 이를 風이라 일컬음은 위로부터 교화를 입어서 노래하면 그 노래가 사람을 감흥시킴이, 마치 바람으로 인해 사물을 움직여 소리를 내매 그 소리가 사물을 움직일 수 있음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후가 이를 채집해 천자에게 바치면, 천자는 이를 받아 樂官에 배열하고 이를 통해 풍속의 美惡을 살피어 그 정치의 득실을 아는 것이다.”⁴¹⁾

이상을 통해 이세보가 그의 시조집 명칭을 風雅 라 한 것에서도 그의 시정신이 載道的 시가관에 입각한 효용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용론은 문학을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이론으로, 첫째는 시를 개인의 덕성에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생각하고, 둘째는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을 반영하며 사회악을 고발해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⁴²⁾

이 장에서는 載道的 시가관에 입각한 이세보 시조에 대하여 도덕시조, 현실비판시조, 농부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덕시조의 교훈성

문학을 載道之器로 보는 태도는 溫柔敦厚한 성정에서 우러나오는 문학이야말로 인간 교육과 사회 정화 및 정신적 교화를 이룬다는 공리적이며 효용론적인 문학관이다. 이러한 문학관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하여 관료들 사이에는 조선 후기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문학과 忠 · 孝 · 禮 · 智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조 유학자들은 시의 기능적 측면을 인간의 性情, 곧 至善至美한 개인적 정

40) 유희 著 · 최신희 譯, 문심조룡, 현암사, 1994, p. 240.

〈夫化假-國謂之風 風正四方謂之雅〉

41) 而風者 民俗歌謠之詩也 謂之風者 以其被上之化以有言 而其言又足以感人 如物因風之動以有聲 而其聲又足以動物也 是以諸侯採之以貢於天子 天子受之 而列於樂官 於以考其俗尚之美惡 而知其政治之得失焉(詩傳, 詩集傳序)

42) 유약우 著 · 이장우 譯, 중국의 문학이론, 동화출판공사, 1984, p. 94.

서의 표현으로 보면서도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고 심성을 도야하여 世事의 도리를 평정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교화를 실현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시를 인간의 실천도덕, 즉 올바른 人道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학의 효용론적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이세보는 사대부의 가문에서 자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근본 사상을 떠날 수 없었다. 신분제의 변화와 천주교의 소개, 실학사상의 유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禮사상을 바탕으로 爲己之學과 忠·孝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세보의 시조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고 독창성이 있다고 논의되면서도 그의 시조를 사대부시조의 틀 속에 규정짓는 이유는 비단 왕족이라는 출신성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시조에서 드러나는 의식지향이 전대의 사대부들과 같은 관념성과 교훈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조선후기 왕족 사대부였던 이세보는 철저한 유교의식에 입각하여, 인간의 도리를 깨달아 실천하기를 바라는 도덕적 관념을 담은 작품들을 다수 남기고 있다.

1) 爲己之學

조선조 사회에서 사대부들은 자신의 인격을 닦고 이러한 修己를 바탕으로 사회의 교화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해 마음으로 깨닫고 몸소 실천하기 위한 인격 수양의 내용을 노래했다. 그래서 조선조의 문학에서 이것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시대나 장르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작가 이세보의 시조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악현 말 훈 연후의 착현 말 심각하고
착현 일 지난 후의 악현 일 찌땃는다
아마도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인가 (風雅 252)

위 시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하기를 勸戒하여 읊은 것이다.⁴³⁾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善言·善行보다는 惡言·惡行을 먼저 하기가 쉬운 법이다. 선행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통해 선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람에게 있어 환경의 중요성을 읊은 것이다.

착한 스름의 집의 악한 스름 적고
악한 스름의 집의 착한 스름 적다
아마도 일노 뜻츠 삼천지곤가 (風雅 250)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따라서 그가 처한 사회와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위 시조에서 작가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면 그 집안에는 악한 사람이 적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악한 집안이라면 착한 사람이 나오기란 힘들 것임을 말하고 있다. 孟母의 三遷之教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니,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주장하는 일종의 환경결정론적 발언인 것이다. 작가는 위의 시조를 통해 가정교육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가정과 가족은 한 사회가 그 자체로 존속하는 것을 지키는 최소의 단위이다. 가정을 통해 개인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시키며, 그 가정의 혼란은 즉각적으로 전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도덕시조인데도 오륜과 관련된 어휘를 전혀 쓰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작품은 매우 평이한 언어를 구사하며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대중 시조와의 친연성을 암시한다.

불원턴 불우인은 고금을 경계시라
형실 모른 학업 업고 학업 못헌 군즈 업다
엇지타 스름이 성경현전의 뜻이 적어 (風雅 253)

취중의 지닌 일리 씨고나면 낭뵈만코
식욕을 안 삼가면 병드러 후회 만타

43)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p. 331.

아마도 유식 두즈난 스릅의 평성인가 (風雅 405)

風雅 253은 사람들이 고금으로부터 경계해온 不怨天 不尤人 즉,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말을 잊고 있으니 성경현전에 뜻을 두어 유의하라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아 생각하며 학업을 닦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風雅 405는 酒色을 경계하기 위하여 읊은 시조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취중에는 실수하기 쉬우며, 色慾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생 동안 酒色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이세보는 왕족 사대부로서 철저한 유교의식에 젖어, 사람들이 人慾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닦기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또한 이세보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자 얼마나 애썼는가를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忠 · 孝의 강조

시조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심성을 바르게 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데 힘쓰며, 또는 백성을 교화시키고 깨우치는 데 소용되는 수단으로써 그 자리를 굳혀왔다. 이와 같은 성격과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시조가 곧 도덕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고 그 중에서도 ‘忠과 孝’를 강조한 시조들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三綱五倫 중에서도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인륜 관계의 으뜸이라 생각하였다. 이세보도 다수의 작품에서 忠 · 孝를 노래하고 있는데, 도덕적 규범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의 굳은 신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忠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티산갓치 높흔성덕 엇지 감히 잇자오리
마정방동 다흐기로 은혜를 갑흘손가
아마도 군신지우난 나뿐인가 (風雅 163)

임피시고 노던 명당 눈의 암암 그리웨라

싱각고 못 뵈우니 뵈 정성 쏘이로다
언제나 못다헌 충성을 다시 갈녁 (風雅 165)

대명천지 밝은 날리 니방의는 안비훤다
니불충을 싱각호면 밝은 날를 원망호라
엇지타 세상의 지디 호리 적어 (風雅 185)

위 작품들은 모두 이세보가 유배되었을 때 신지도 유배지에서 자신의 불충에 대한 회한을 읊은 것이다. 이세보가 안동 김씨 세도의 모함으로 유배를 갔을 때 군왕에 관계된 시조를 가장 많이 지은 사실⁴⁴⁾을 통해서 그가 충을 가장 중요한 실천윤리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세보는 쓰라린 고통의 연속인 유배지에서도 태산같이 높은 군왕의 성덕을 어찌 감히 잊겠느냐고 하고 있다(風雅 163). 그리고 과거에 임금을 꾀시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언제쯤 다시 解配되어 임금에게 못 다한 忠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워하고 있다(風雅 165). 風雅 185에서는 대명천지 밝은 날의 햇빛이 화자의 방에는 비치지 않는데, 자신의 불충에 의해 유배되었으니 밝은 날을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 하고 있다. 어둠에 갇혀 있는 부자연스러운 처지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불충 때문이라는 중장의 술회를 통해서 반사적으로 ‘忠’을 내세우려는 화자의 숨은 의도를 포착할 수 있다.

다음은 孝를 노래한 작품들이다.

북당의 학발부모 타향의 날보니고
이즈지정 그린회포 의문의려호시련이
아마도 불효두즈난 나쁜인가 (風雅 172)

형극의 몸을 두어 청춘을 허송호니
부모봉양 언제호며 심산작업 어이호리
아마도 금세디악은 나쁜인가 (風雅207)

44) 이세보는 유배기간 중 78수의 시조를 지었는데, 그 중 군왕과 관계된 시조는 18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타향의 성일 되니 부모동성 그리워라
밥상의 뜻는 눈물 점점이 피가 된다
언제나 무궁한 회포를 부모전의 (薪島日錄 84)

위의 시조들도 모두 이세보가 유배지에서 부모님을 그리며 지은 작품들이다. 이세보는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편벽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다. 薪島日錄에는 ‘우리 부모 나를 처음으로 나오시미 나를 도라보고 또 도라보와 편벽되이 지즈흐시 도다’라고 썼으니, 이세보는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사실이 더욱 불효라 여겨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려 부모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맛있는 음식과 의복을 제때에 해드려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행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이세보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모 봉양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위 작품을 보면 부모를 봉양하기는커녕 학발부모로 하여금 유배지에 있는 자식을 노심초사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風雅 172), 그것도 모자라 유배지에서 청춘을 허송하고 있으니 장남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일조차 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風雅207). 그리고 유배지에서 맞는 생일날, 부모 동생이 그리워서 밥상에 떨어지는 눈물은 피눈물이니 언제나 이 무궁한 회포를 풀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다(薪島日錄 84)⁴⁵⁾.

위에서 언급한 忠·孝시조들은 이세보가 薪智島 유배생활 당시 갈등과 좌절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유교 윤리의 계몽만이 아닌 시적 감동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임금의 은혜를 갚거나 부모에 효도를 다하는, 다시 말하자면 당대 보편적 가치인 忠孝에 대한 의지를 자신의 유배라는 특수한 체험을 바탕으로 표출함으로써 지나치게 교훈적일 수 있는 주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세보는 위와 같이 자신의 유배생활을 바탕으로 반사적으로 忠孝를 내세우기도 했으나, 보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忠孝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45) 진동혁, 앞의 책, p. 267.

세상의 나기난 쉽고 잘 죽기난 극난이라
선도 알기 썩 어렵고 악도 알기 미양 쉽다
아마도 스릅의 평성은 충효 두즌인가 (風雅 262)

처즈 사랑은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며
공명 높힐 욕심으로 님군을 섬기며는
아마도 불충불효는 면흐련이 (風雅 407)

三綱五倫의 첫째 덕목은 忠孝로, 몸을 바쳐 임금을 섬기는 일이나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한가지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생활양식이었다. 이세보도 위 작품들에서 忠孝를 사람들이 일평생동안 지켜야 할 덕목이라 말하고 있다.

風雅 262에서는 忠孝의 중요성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피력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예사로운 일이지만 죽을 때에 잘 죽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 선을 알기는 어렵고 악을 알기는 매우 쉬운 일이니 사람의 일평생은 忠孝 두 자에 달려있으므로 忠孝에 얼마나 盡力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일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읊은 것이다.⁴⁶⁾ 風雅 407은 忠孝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며 공명 높아질 욕심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不忠과 不孝는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여기서 작가는 忠과 孝가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이세보는 조선조의 다른 사대부들처럼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연모의 감정을 노래했고,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심과 사모의 정, 그리고 그리움을 토로했다. 이세보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인륜관계의 으뜸인 君臣·부자 관계에서 지켜야 할 忠·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忠·孝시조에 나타나는 교훈성과 관념성은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관철된 것이지만, 전대의 사대부들과 동시대의 사대부 조황과도 차이가 있다. 전대의 사대부들과 조황의 『훈민가』는 강한 명령어법을 사용하여 유교적 교훈의 전

46) 진동혁, 앞의 책, p. 334.

47) 진동혁, 위의 책, p. 335.

달이라는 목적으로만 일관하는 반면, 이세보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忠 · 孝에 대해 말하면서도 유배라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독자에게 감동과 교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3) 참된 벗 사귄

공자와 맹자 같은 성현의 道를 배우는 君子는 義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小人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군자는 의리를 숭상하기 때문에 참된 벗 사귄의 도리를 다할 수 있으나, 소인은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맞으면 부화뇌동 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서로 등을 돌리고 信義를 저버리기 일쑤다. 그러므로 역대의 흥망성쇠 등 정치의 득실은 물론이요, 친구나 이웃 간의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고 어긋나는 것과 개인적인 삶의 잘잘못이 모두 다 참된 벗 사귄이 제대로 행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기 마련이었다. 군신 간의 관계나 사제 간의 관계도 지위의 高下와 연령의 上下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의 友道를 지극히 하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었다.⁴⁸⁾

일찍부터 우리 고전시가에서도 이러한 友道, 즉 참된 벗 사귄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선인들에게 있어 忠과 孝 못지않게 友道가 중요한 가치였음을 알 수 있다.

퇴계 이황의 한시 『金愼仲挹淸亭』 중 ‘會友’는 벗 사귄과 관련된 시로, 유가로부터 전수되어 온 군자의 友道, 즉 이익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달리 글공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자기의 仁을 보필해 나가는 벗 사귄의 도리가 형상화되어 있다. 조선 전기의 문인 송강 정철은 그의 시조 『버지 無心탄 말』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남으로 만난 사람 중에 친구 사이가 가장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허물 에 대해 진실 되게 충고해 주고 참된 길로 이끌어 주니 벗이 아니면 참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친구간의 도리, 진정한 우정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왕족 사대부였던 이세보 역시 벗과의 사귄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朋友之交를 읊었다.

48) 정만섭,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友道와 友道論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9.

봉우를 스귀거든 의심을 떨니호고
구이상경호야 시동이 갓홀지라
아마도 군즈지교는 담여순가 (風雅 257)

이 시조는 참된 벗 사귀에 대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친구를 사귀거든 언제나 의심을 떨리하고 오래 사귀되, 변함없이 공경해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君子之交는 담박하기가 물과 같다는 것이다.

동방 화촉야의 무정타는 임이 업고
타향의 만난 봉우 안 반기는 슝 업다
그 중의 정 어렵기는 산계 야목 (風雅 391)

이 시조의 초장에서는 신랑이 첫날밤에 신부방에서 자며 정이 없는 낭군은 없으며, 중장에서는 먼 타향에서 만난 죽마고우에 대한 우정은 더욱 돈독하여 그 친밀감을 강조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성질이 거칠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만큼은 朋友의 정을 느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진정한 우정은 신혼부부 이상의 돈독한 정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진정한 벗 사귀는 이익으로써 하거나 面交로써 하는 것이 아니며, 마음으로써 하고 德으로써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위의 시조에서 작가는 朋友의 의미를 대비적인 상징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세보는 만 3년간의 신지도 유배기간 동안에도 벗을 그리는 마음을 시조로 나타내었다. 그 중 한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꿈의 맞났던 봉우 찌여보니 허스로다
증험은 잇섯건만 소식이 돈년호다
아마도 무정춘몽이 날속인가 (風雅 205)

꿈속에서 만났던 朋友가 눈 떠보니 허사였기에, 꿈속에서 만났던 朋友와의 만남이 실지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었건만 절실하게 보고 싶은 친구로부터의 소

식이 조금도 없다. 이는 아마도 무정한 헛된 봄의 꿈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으로, 작가의 간절한 ‘朋友之情’이 꿈을 매개로하여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조는 자신이 처한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朋友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표출을 나타내고 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 서서 朋友之交를 읊은 것이 아닌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나온 특정 가치와 자기 인식의 결과를 시라는 형식을 빌어 전달하고 있으므로 교훈성의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忠·孝시조에서 이미 살펴본 바, 독자에게 감동과 교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2. 위민적 현실인식

삶이 현실을 떠나 가능할 수 없듯이 문학도 현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문학이란 삶의 구체적 작용인 작가 의식의 표현이며 체험의 반영으로, 작가와 현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교에 바탕을 둔 조선사회에서는 시를 개인의 덕성에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생각하고, 또한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을 반영하며 사회악을 고발해야 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시가 世教, 治教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을 돌이켜 보게 하고 그 행동을 고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세보보다 약 60년 정도 앞서 조선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茶山 丁若鏞(1762~1836)은 다음과 같이 그의 詩觀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시대에 대해서 상심하고 풍속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나쁘다고 풍자하기도 하며, 권장하고 징벌하기도 하는 뜻을 가지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다.⁴⁹⁾

(...) 그 다음으로는 세상을 근심하고 백성을 가엾게 여겨야 한다. 언제나 무력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측은하게 방황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

49) 不愛君憂國 非詩也 不傷時憤俗 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影印本 與猶堂全書 제1집, 詩文集 21, 『寄淵兒』, 경인문화사, 1970, p. 443).

려는 뜻을 가져야 비로소 詩다. 자기의 이해만 생각하는 것은 시가 아니다.⁵⁰⁾

어떤 내용을 담아야만 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가 되지 않는다는 다산의 단호한 주장은 요컨대 ‘經世濟民’에 입각한 詩觀이다. 다산은 정치 및 經世의 길과 詩作의 행위를 둘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61편이나 되는 현실비판시조를 남긴 이세보의 위민적 현실인식 또한 다산과 같은 시관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세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수탈당하는 그들의 참상을 고발하였으며, 관찰사·수령·아전 등의 외관직을 대상으로 그들의 貪虐을 비판하고 깨우치기 위해 애썼다. 또한 현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리들을 각성시키는데 있다고 믿고 중앙관료로서 지방관료들의 소임에 대해 일러주며 교화,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이세보의 현실비판 시조가 앞서 언급한 정치적 기능의 담당이라는 측면에서 효용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세보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순수 국문으로 표기했는데, 정약용이 민본의식을 기저로 다량의 사회시를 지었으나 그 표기수단이 한자인데서 오는 한계와 아쉬움에서 진일보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 시가에서는 禮와 樂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세상의 조화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⁵¹⁾ 그래서 체제의 모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적인 자세가 드러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므로 시조 작가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3장의 단형 형식인 시조는 서정적인 자아가 순간에 느끼는 감동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데 용이한 양식이므로 사회 현실의 문제를 구체화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세보는 당대의 부조리한 부패상을 시조의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화자의 개인적인 정서가 존중되는 서정시의 기본틀과 인륜 도덕과 이념의 무장으로만 일관하던 재래적인 고착된 인식을 모두 깨뜨리고, 현실의 문제를 시의 세계로 끌어들었다.⁵²⁾ 이것은 이세보의 봉건체제를 뛰어넘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며, 고시조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조선조 시조작품을 상

50) 其次憂世恤民 常欲拯無力 欲闢無財 彷徨側傷 不忍遽捨之意 然後方是詩也 只管自己利害 便不是詩 (앞의 책, 「示兩兒」, p. 447).

51) 김학성, 「시조의 시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6집, 1991, p. 415.

52) 김준옥, 「이세보시조의 두 경향과 문학사적 위치」, 시조학논총 13, 한국시조학회, 1997, pp. 96~104 참조.

고해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 현실비판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 李德一, 鄭勳, 趙梔 등에서 보이는 거의 몇 수가 전부라 할 수 있는데⁵³⁾, 작품수도 미미한데다가 그 표현도 ‘눈물계워 흐노라’ 식의 개탄, 탄식 등 완곡한 표현을 쓰는 데 그치고 있다.

18세기에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 왔던 辭說時調는 정감이나 감성의 해방과 같은 현실 대응 방식을 취했을 뿐이었으며 두터비, 빈대, 등에와 같은 동물을 통해 정치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비판성보다는 戲畫性이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세보는 19세기 후반의 왕족이며 집권 관료의 일원이라는 신분으로 현실의 矛盾을 직접 드러내고 痛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피지배층의 억울함과 울분, 그리고 참상을 함께 대변하는 爲民의 일도 시조로 다룸으로써 다산의 사회시와 같은 경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1) 농민의 참상 고발

이세보가 살았던 19세기 조선 사회는 세도정치와 관료들의 부패로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으며, 그 결과 여기저기에서 농민들의 항거가 잇달아 일어난 혼란기였다.

정치 문란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세도 정치는 순조 · 헌종 · 철종 3대에 걸쳐 내려온 一黨政治였던 까닭에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의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 뇌물로써 관직을 얻게 된 지방 관리들은 재임 기간 중에 그 재물을 벌충하기에 급급했고, 지방의 아전들도 수령에게 금전을 상납하고 자리를 얻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모순과 수령 · 향리의 부정은 국가의 경제적 근간인 三政을 문란하게 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처참해져 갔다.

다산은 이 시기에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관료들의 부패상에 대해 『牧民心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씀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으니, 오늘날 백성을 기를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下民들은 여위고 시달리고 시들

53) 이덕일의 경우 「우국가」 28수, 정훈은 우국개세 5수, 조항 「기구요」의 2수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는 朴估男, 「朝鮮後期 兩班時調 研究」, 韓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p. 99~102를 참고)

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추렁이를 메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⁵⁴⁾

위의 서문을 보더라도 그 당시 백성들의 생활상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民心을 크게 동요시키기 시작하며 세도정치에 병든 양반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1811년 홍경래의 亂을 필두로 1862년 晋州民亂, 開寧民亂 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왕조가 쇠잔해지고 중앙 관료 체제가 흔들리는 19세기 조선 말기에, 이세보는 왕족 사대부로서 농민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궁핍한 농민들의 현실을 그들의 입장에 서서 고발하였다. 또한 농민이 직접 발화하는 형식을 취하여 세금과 부역에 대한 한탄과 아전의 행패에 대해 하소연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가련하다 우리인심 이 상애를 어이허리
칠월더위 공마모리 셋달 치위 납토산영
그 중의 연호잡역은 몇가진고 (風雅 306)

우리 심의 드러보소 산의 올라 산전 파고
들의 내려 슈답가러 풍한셔습 지은 농스
지금의 동증니증은 무삼일고 (風雅 307)

위의 두 작품은 모두 ‘우리’라는 연대감을 우선으로 民生苦에 시달리는 농민의 한탄하는 목소리를 통해 발화한 것이다. 농민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은 과중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賦役을 지나치게 과함으로써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弊가 많았다. 風雅 306은 칠월 더위를 무릅쓰고 貢馬를 몰며 동지선달 추운 날에 臘兔 사냥과 煙戶(民戶)에 내려지는 雜役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 것이냐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風雅 307은 量田의 부실로 山田, 水田 좋지 않은 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힘들게 농사를 지었지만 洞徵里徵으로 온갖 세금을 다 거두어 가니

54) 정약용 · 다산연구회 譯註, 譯註 牧民心書 1권, 장작과 비평사, 1993, pp. 9~10.
聖遠言湮 其道寢晦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於是下民膏因 乃瘵乃瘵 相顛連以 實溝壑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는 내용의 民生苦를 읊고 있다.

인용된 두 작품은 1인칭 화자인 농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는 형식으로, 시조의 첫머리를 “가련하다 우리인생”, “우리 싱애 드러보소”와 같이 시작함으로써 농민들의 절망에 빠진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1인칭 화자인 농민이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형식의 시조들은 부당한 국가의 체제와 비리에 대해 농민들의 관점에서 비판과 고발을 하는 효용론적 문학관에 입각한 것이다. 시적 화자인 농민이 사용하는 어투 또한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평범한 대화투로, 이전의 평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소리나 서민가사, 민요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각귀기가하여 보니 반도반미 황당하다
두섬이 열말되고 한섬이 닷말이라
무상헌 희식고즈 엄장중치 못하신가 (風雅 295)

저 백성의 거동 보소 지고 짓고 드러와서
한 섬 쏠를 맞치라면 두 섬 쏠리 부득이라
약간 농스 지엿슨들 그 무엇슬 먹즈하리 (風雅 296)

이 작품들은 三政의 문란에 관한 내용 중 還政의 비리에 대해 읊고 있다. 이세보는 三政의 폐단 중에서도 還政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당대의 현실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환곡의 비리가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 風雅 295는 환곡으로 받아 온 쌀이 집에 와서 다시 헤아려 보면 그 양이 반밖에 되지 않거나 사람이 먹기 힘든 겨를 끼어 넣어주기가 일쑤인데, 왜 법도 없는 창고 담당자를 嚴杖 重治 못하느냐고 따지는 내용이다. 風雅 296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서 환곡미를 갚기 위해 농사지은 전부를 가지고 들어와 계산해 보아도 갚으려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농사를 지었어도 정작 자신들이 먹을 것은 없다는 한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조는 구어체인 ‘저 백성의 거동보소’라고 시작하여 시적 주인공과 거리를 취하고 있으나, 살아갈 길이 막막한 농민의 신세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묘

사하고 있다.

이전까지 조선조 사대부 시조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대개 전원적 풍경 속의 인물이거나, 근면을 권장하고 풍속을 교화시키려는 대상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세보의 시조에서는 화자를 농민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困窮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가 왕족 사대부이면서도 철저히 농민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세보의 시조에서 농민들은 객관적 소재로서의 景物이 아니며,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작가 자신의 구체적 체험으로 환치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관료들의 貪虐과 不正腐敗 비판

18세기 영·정조의 탕평책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던 조선왕조는 정조 이후 11세의 나이 어린 군주 순조(1800~1834)의 등극으로 외척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순조에 이어 헌종, 철종 등 나이 어린 군주의 연이은 등극은 상대적으로 왕실과 戚族 관계가 있는 양반 관료가 권력을 장악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세도라는 이름의 통치 대행체계는 정부의 고관현직이 외척 세력들에게 독점되다시피 하여 정치 기강을 혼란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과거제도에 있어서도 뇌물에 의한 응시와 합격증의 남발 등 그 난맥상을 더해 갔다.

중앙에 있어서의 정치 문란은 지방행정과 재정의 혼미를 가져왔다. 뇌물로써 관직을 얻게 된 지방 수령들은 재임기간 중에 그 재물을 벌충하기에 급급하여 稅穀이나 稅錢을 정량 이상으로 많이 거두어들이거나 그 일부를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악행을 일삼았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 여러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⁵⁵⁾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이세보는 사회 깊게 뿌리박힌 守舊과 衙前들의 貪虐과 부정부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탐학수령 드러보소 입시날 칠사강을 뜻알고 흥엿뜯가

55) 한우근,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1996, pp. 371~372.

성맛글 써나서면 어니 그리 실진하고
저런 병의 먹는 약은 신농씨도 모르련이 (風雅 297)

이 시조는 화자가 탐학을 일삼는 守丞에게 직접 발화하는 형식이다. 守丞이란 府尹, 牧使, 郡守, 縣丞, 縣監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시조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분노와 증오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 시대에는 守丞이 부임 직전에 왕에게 入侍하여 善治를 맹세하면서 七事講을 외었다. 그런데 입시 날 그토록 다짐했던 善治의 뜻을 성문 밖을 나서자마자 七事講의 내용은 모두 잊은 채 탐학만을 일삼고 있으니, 百草를 맛보아 藥을 만들었다는 神農氏조차도 그런 병에 먹는 약은 모를 것이라고 慨嘆한 것이다.⁵⁶⁾ 아마도 이세보는 그 당시 貪虐을 일삼는 수령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정의 여러 강구책도 소용없음을 한탄스럽게 생각하며, 신농씨조차도 탐학수령의 고질적인 병을 고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련허다 창성드라 심이구간 한틀마라
심경이루 지은 농스 사시공역 무분슈라
언제나 명천이 감동흐스 탐관오리 (風雅 別集 下卷 57)

가련한 백성들에게 생활이 어려움을 한탄하지 말라며 훈계하고 있다. 농민들이 深耕하여 열심히 농사짓는데, 사시사철에 따른 公役이 분수없이 많으니 고달픈 그들의 생애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모두 탐관오리의 흑심한 貪虐 때문이라고 하면서, 언젠가 하늘이 감동하셔서 탐관오리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 더 어렵다 칠모르는 장교 아전
틈틈이 쳐져와서 육질미질 분슈없다
지금의 더던통편 다 어찌 간고 (風雅 308)

위 시조는 백성들이 장교와 아전들에게 수난을 당하는 참혹한 형편을 읊고 있

56) 진동혁, 앞의 책, p. 176.

다.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장교와 아전이 틈틈이 찾아와서 무고한 백성들을 욕하고 매질하니 대전통편은 어디로 갔느냐고 한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목소리에서 법은 소용없고 권력 있는 자들의 횡포만이 판치는 세태를 고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실비판시조들을 통해서 이세보가 그 당시 농민들의 간고한 삶의 원인을 삼정의 폐단과 수령·아전의 부패로 보고, 그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이세보의 시조들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반성을 촉구한 강한 사회의식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여타의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볼 수 있는 관념성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이며 사회 다방면에 걸친 부패와 모순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시조가 현실의식이 약한 시조의 전통에 새로운 흐름을 이루어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든다.⁵⁷⁾

3) 관료의 소임에 대한 권계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에 대해 고미숙은 “모든 원인과 해결책을 운명이나 하늘의 뜻으로 돌림으로써 인식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대 통치 집단의 오류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오로지 추상적인 인륜의 문제로 환원할 뿐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⁵⁸⁾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이세보의 시조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당대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문제들의 나열로만 끝나고 마는, 즉 해결책의 제시는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세보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爲政者들이 유학의 道를 설과한 옛 성현들의 말씀을 좇아 修己治人하는 데서 찾았다. 유교의 실천적 愛民思想을 바탕으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善治하고 개혁한다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太平聖代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세보는 그 당시 횡행했던 관료들의 貪虐과 不正腐敗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횡포를 저지르는 관

57) 최헌기, 「이세보 시조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51.

58)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예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243.

료들을 권계함으로써 교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리라 여겼던 듯하다. 당시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와 대전통편의 법도 별 소용이 없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래서 먼저 농민의 참상을 제시하여 문제의 현실을 개괄하였고,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원인으로 관리들의 貪虐과 不正腐敗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문제가 체제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문제를 갖고 있는 탐관오리들이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여 권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진정한 시는 인식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며, 또한 특정한 세계관을 전달하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⁵⁹⁾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貪官汚吏들의 敎化를 목적으로, 관료의 소임에 대해 훈계성 어조로 권계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나라업는 번신보며 번신업는 나라본가
가련헌 저 빅성을 포복가치 스랑흐면
아마도 타일선음이 즈우손을 (風雅 302)

이 시조는 초장에서 藩臣, 즉 감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직책을 ‘나라’에다 연결 시킴으로써 그 책임의 막중함을 말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관찰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愛民에 대해 말하면서 종장에 가서는 爲民善治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 직분에 충실치 않을 수 없다는 권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세보는 이렇듯 관리들의 막중한 소임과 올바른 처신에 대한 所當然의 문제를 당부하고 있다.

충성춤 범측측을 충익위 힘을써써
쇼스셔승 맞친후의 외방슈령 상활흐다
아마도 곤병등단은 인기를 돛츠 (風雅 304)

59) 엄국현, 「詩에 있어서 事物認識」,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27.

이 시조는 수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무관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로지 忠과 則을 신조로 삼아 외방수령의 자리까지 오른 행적을 치하하면서, 병사가 되고 대장이 되는 일은 인기 있는 일이니 계속해서 정진하라는 충고이다. 이세보는 이밖에도 수령은 말이 많으면 안 되고(風雅 345), 출퇴근시간을 잘 지켜야 하고(風雅 336·337), 물자를 절약해서 써야 하며(風雅 344), 백성들을 구급해야 한다(風雅 338)는 내용의 시조도 남기고 있다.

다음은 方伯과 守丞 모두에게 사채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방백수령 업시 시채송스 공결호소
 변지변 이지이를 분슈업시 달나흐니
 아마도 츠송스는 누명이 쉬워 (風雅 329)

訟事란 백성들끼리의 분쟁을 관부에 호소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訟事가 합리적으로 처리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권이 보장될 수도 있고, 수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관료들의 기강 해이로 송사에 있어서도 공정하지 못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세보는 이러한 訟事弊에 대해 그의 시조에서 3편에 걸쳐 읊고 있다. 사채송사의 공정을 바라는 내용(風雅 329)과 묘지송사(風雅 326), 그리고 수령의 취중송사를 경계(風雅 346)하여 지은 작품들인데, 위 시조는 사채송사의 공정을 바라는 내용이다.

초장에서 사채송사를 다루는데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방백, 수령 할 것 없이 모두들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자를 분수없이 달라고 하니 채무자 편에서 그들을 동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관계된 송사이기 때문에 누명을 쓰기 쉬우므로 방백과 수령은 신중해야 할 것을 각성시켰다.⁶⁰⁾ 이 시조를 통해 당시 방백과 수령들의 송사에 따르는 비리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조들은 이세보가 관료들의 貪贓과 不正腐敗가 자행되던 당시에 관료의 소임에 대해 권계함으로써 정당치 못한 만행들을 미리 막자는 의도

60) 진동혁, 앞의 책, p. 189.

에서 나온 경계시조라 할 수 있다. 이세보는 관념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당시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던 구체적이고 현장성 있는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도 사실감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현실의 갈등과 모순을 관념적인 도덕관으로 미화시키지 않고, 그 실상을 파헤쳐 각성·개선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세보의 위민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들이 그의 시조가 현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조로 표현해 냈다는 점 이외에도 그 가치를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삼엄한 교훈으로 남게 될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를 통해 문학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단지 서정성·유희성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의 고통을 고발하고 치유하는 일과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동체적 삶의 문화 이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생산 활동의 으뜸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관심을 가져 조선조에서는 社稷壇과 先農壇을 세워 제사를 지내 농사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뜻이 지방관들에게도 전해져 勸農의 조처들이 행해졌다. 그래서 때로는 方伯들에 의하여 그러한 勸農의 뜻을 노래로 읊어 부르게 함으로써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에 열중하도록 하였다.

문학 작품에 있어서도 勸農主旨의 이러한 일련의 노래를 농부가라는 제목으로 작품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시조에 있어 단편적으로 농부의 생활을 읊은 노래는 산견되는 바이지만 연시조 형식을 취한 작품은 이휘일의 『楮谷田家八曲』과 위백규의 『農歌九章』 뿐이다.⁶¹⁾

조선조가 농본국가이고 농사가 생존과 직결된 것이지만 실제 영농을 담당하는 계층은 서민계층이었다. 따라서 시조 향유계층이던 양반계층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이 분야는 관심 밖의 것이었다. 게다가 사대부들이 시조

61) 吳鍾珪, 「李世輔의 連時調 研究」, 韓國詩歌學會 第5輯, 1999, p. 356.

를 道를 담는 그릇이나 서정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인식한 이상, 농사라는 주제는 시의 소재로 수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세보가 생존했던 19세기 조선조 철종 시대에는 과거의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왕조가 쇠잔해지고 중앙 관료 체제가 흔들리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관료들의 부패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농민들의 생활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때에 이세보가 농민들과는 먼 위치에 있으면서도 위민적인 태도로 권농을 역설하고, 농민들의 고초를 그리고 있어 그의 경세제민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세보는 연시조의 형식으로 모두 10수에 해당되는 『농부가』를 지었다. 특히 이세보의 『농부가』는 일년 중 농부가 해야 할 소임을 밝힘과 동시에 과세에 시달리는 참담한 농민의 상황을 농민들의 처지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조나 가사류에서 보여주지 못한 점이어서 이세보가 농민 계층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봄에 대해 3수, 여름 2수, 가을 4수, 백성에 대한 훈계 1수로 총 10수, 1편의 『농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의 농기 닳고 이월의 밭출 간다
장정은 들의 놀고 노약은 집의 잇서
지금의 게으른 즈부 신축한다 (風雅 56)

춘일이 지양하니 창경이 우짖는다
뒤 피의 풀를 썩고 앞 논의 변경이라
아희야 들점심 니여 올 제 술 잊지마라 (風雅 57)

좌슈의 잡은 출광 우슈로 옮겨니여
농부가 흥을 계워 슈답의 이동하니
아마도 성세낙민은 이뿐인가 (風雅 58)

초운지운 풀밀적의 저 농부 슈고한다
스립쓰고 흙의들고 상평호평 분주한다

아마도 실시하면 일년성의 허스인가 (風雅 59)

근고하여 심은 오곡 날가무려 근심터니
유연작운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도는 성화신가 (風雅 60)

빅노상강 다닷거든 낮가려 손의들고
지계지고 가서보니 빅곡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헌 농부야 일너 무삼 (風雅 61)

일년을 슈고하여 빅곡이 풍등하니
우순풍도 아니런들 함포고복 어이허리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과동이 어려 (風雅 62)

그디 추슈 얼마 현고 너 농스 지은 거슨
토세 신역 밧친 후의 멋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과동이 어려 (風雅 63)

그디 농스 적을 적의 너 추순들 변변헐가
저 건너 박부즈집의 빗이나 다 갑흘는지
아마도 가난헌 스품은 가을도 봄인가 (風雅 64)

철없는 빅성드라 가난을 설다마라
절용절검 슈신힌면 성세청복 되리로다
아마도 지독을 못하면 가턱이 불안 (風雅 65)

이처럼 이세보의 『농부가』는 농가의 일 년 農政을 계절에 따라 읊음과 동시에 농민들의 고초를 그리고 있으며, 목민관으로서의 훈계로 갈무리하고 있다. 위 작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해의 시작은 正月로부터 이루어지니 정월과 2월에는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農器를 정비하고 논·밭을 갈아야 함을(風雅 56), 곧 봄날이 따스해지니 풀을 깎

고 논을 갈아야 함을(風雅 57), 그리고 흥겨운 농부가를 부르며 모내기 하는 농부의 모습(風雅 58)을 제시하고 있다. 여름에는 풀매기에 분주해야 함을 강조(風雅 59)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그와 같이 근고한 결과로 백곡이 풍등함을 기뻐하고 있다(風雅 61·62). 이러한 이세보의 『농부가』에 나타나는 권농의식과 근면의 강조는 조선후기 다른 농가류 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기존의 사회체제를 위해 농부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하향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風雅 63과 64는 농민을 화자로 설정하여 처참한 농민의 현실상을 보여주고 있다.⁶²⁾ 즉, 화자인 농민이 추수 후에도 土稅와 身役, 그리고 그동안 차용한 것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풍요로워야 할 시절조차도 춘궁기처럼 곤궁함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를 농민들 간의 대화로 처리하여 더욱 현장감이 느껴진다. 결국 이 작품들을 통해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 등의 수탈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농촌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이세보는 종친이자 사대부로, 비록 농민들과는 신분적으로 먼 위치에 있었지만 농민들의 고충을 동정하고 농민의 처지로 돌아가서 생각할 줄 아는 폭넓은 인간미를 지닌 목민관이었다. 기존의 전해지는 사대부들의 농사시조에서는 전원생활의 흥겨움을 노래하거나 勸農과 農事의 어려움만을 읊으며, 고되고 힘들어도 농업이야말로 소망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며 어디까지나 사대부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세보는 농사의 중요성과 勸農, 그리고 농사의 어려움을 읊고 있으며, 다른 작가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중한 土稅로 시달리는 농민의 困苦 등 농민의 현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가 전통적인 농경적 삶의 양식을 공동체적 삶의 문화로 인식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철저히 이해하여 대다수 백성들과 삶을 동질화하려는 의식에서 함께 고민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세보의 선량한 목민관적 위민의식을 나타내는바, 그의 『농부가』에 나타

62) 「風雅」 63과 64는 현실비판시조로 분류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박길남은 “현실비판시조를 생각해볼 때, 현실비판시조는 관료의 비판·훈계가 대부분이고, 삼정문란을 읊은 작품에서 농민의 모습이 간간히 보인다. 그런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백성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 혹은 그 이전 그러한 제도를 잘못 시행하는 관료에 초점을 맞춰 말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비해 「風雅」 63, 64 작품은 시야가 관료가 아닌 처참한 농민의 모습에 맞춰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민의 모습이 유사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도 작자의 초점이 관료에 있느냐 혹은 농민에 있느냐에 따라 그 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며 「風雅」 63과 64를 농부가로 분류하고 있다. (朴信男, 「朝鮮後期 兩班時調 研究」, 韓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 122)

나는 하향적 어조의 훈계 역시 농촌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을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체제유지를 위한 의도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농업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이 됨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농업이 공동체의 안정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부각시켜 농사에 더욱 힘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세보는 농민들의 삶의 방식과 고충을 이해하며, 공동체적 삶의 문화로써 삶의 기반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백성들에게 권농과 절용절검에 대해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IV. 유배생활의 비애와 애정상사

이세보는 이데올로기적 미적 기준이 무너져가고 근대로 전환해 가는 19세기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반영하며 자신의 개성을 호탕하게 드러내었다. 만 3년간에 걸친 薪智島에서의 유배생활은 정치적 좌절과 고독,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던 유배생활의 아픈 기억을 解配 이후, 기녀와의 애정을 즐기며 위안 받고자 하였다. 이세보에게 있어서 애정생활은 대부분 비극적인 현실을 잊기 위한 한 방안이 되었고, 이것을 반영한 시조들은 그의 낭만적·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이 살아 나가는 방식에는 ‘긴장된 표면’과 ‘이완된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이세보는 만 3년간의 유배생활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저버린 세계와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과 성찰을 가하면서 유배생활의 체험에서 겪었던 고통을 시조로 표출하였다. 그러나 해배되어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시 관직에 올라 순조로운 관료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세보는 이전의 긴장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완된 삶의 만족감을 성취하고픈 심리적 욕구에서 기녀와의 애정을 시조로 읊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성종 8년에 徐居正이 『滑稽傳』을 지으면서 詩經 과 禮記 에 나오는 ‘戲謔’과 ‘文武弛長之道’를 인용한 뒤, 인간의 삶을 비옥케 하기 위해서는 활을 노상 당기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늦추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의 말을 한 것과 상통된다.⁶³⁾ 서거정이 공인으로서의 긴장된 삶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파적삼아 『滑稽傳』을 지었다면, 이세보는 안동 김씨의 모함으로 고통스러운 유배의 경험을 해야 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보상받고, 곤궁한 민초들의 삶을 대변하던 목민관으로서의 긴장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애정시조를 지었던 것이다.

우리 고전시가의 대표적 양식인 시조는 생활현장에서 문득 떠오르는 감회를 즉흥적으로 읊는 노래형식이다. 19세기 왕족 사대부 작가 이세보 역시 유배생활에서 오는 쓰라린 회한과 고통을 읊고 있으며, 애정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일

63)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知識産業社, 1982, p. 126.

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시조 형식 속에 담아내었다. 조선시대 여타의 시조작가들이 문학에 대해 지나치게 載道的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에 비해, 이세보는 載道的인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또한 그 전통에서 벗어난 脫載道的 · 個性的인 성격의 작품군을 다수 창작함으로써 작품 성격상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세보는 民風을 살피고 風俗을 교화한다는 載道的이고 교화적인 효용론뿐만 아니라 서정이나 상상력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실과 느낌을 생활 속에서 시조로 창작하며 실천한 시조작가였다고 할 수 있겠다.

1. 유배생활의 悔恨과 苦痛

유배문학이란 유형인이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과 직접체험의 감성적 내용을 문학화한 것⁶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세보는 안동 김씨 세도가의 미움을 사, 철종 11년, 그의 나이 29세 되던 1860년 11월 6일에 유배의 길을 떠나 11월 22일 강진군 신지도에 도착하면서 유배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철종이 승하하고 1863년 12월(고종 즉위년)까지 만 3년간 康津 薪知島에서 쓰라린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세보는 생활고와 고독 등 유배지에서 겪었던 고통을 중심으로 悔恨, 冀解配, 病苦, 虫害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유배시조를 78수 남기고 있다. 그는 시조를 통해 유배생활의 悔恨과 심적 · 육체적 고통, 還故鄉의 소망을 읊음으로써 유배지에서 겪은 一身上의 시름을 달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품군을 통해 유배에서 오는 고통을 스스로 인내하고 극복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悔恨과 孤獨

경평군의 爵號를 받은 왕족의 일원으로서 순탄한 관직생활을 하던 이세보에게 유배라는 형벌은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세보 유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동생 世翊의 翰林除授에 따른 안동 김씨 세도와의 다툼에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세도정치에 무너져가던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64) 박성의, 「한국문학 배경연구」, 국어국문학총서, 이우출판사, 1980, p. 57.

임이 나를 앗기시미 나도 입을 공경터니
은혜를 못다잡고 나망의 걸녓도다
언제나 인간의 어즈러운 말리 적어 (風雅 164)

더명턴지 밝은날리 니방의는 안비훤다
니불춤을 생각흐면 밝은날를 원망흐라
엇지타 세상의 지디 흐리 적어 (風雅 185)

츠신이 무용흐여 강호의 누엇쓰니
빅구로 이웃삼고 어용으로 화답이라
엇지타 꿈결 세상의 말리 만어 (風雅 159)

風雅 164에서 임은 철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세보는 철종에 대한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한 채, 안동 김씨 세도의 잘못을 논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었으니 이것을 나망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은 무너져가는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 바른말을 했을 뿐인데, 이것을 모함하는 어지러운 말이 언제쯤 적을지 한탄하고 있다. 風雅 185에는 유배생활로 인한 이세보의 처지와 회한이 잘 드러나 있다. 이세보가 받은 流刑은 위리안치였는데, 이것은 죄인이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幽閉시키는 것으로 중죄인에게나 내려지는 형벌이었다.⁶⁵⁾ 대명천지에 日光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유배생활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범한 不忠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이세보는 혹독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죄를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비판과 성찰을 가하고 있다.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유배와 관련된 어느 특정인을 탓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세상에 자신의 罪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恨嘆하고 있는 것이다. 風雅 159는 자신의 몸이 이제 쓸 데가 없어 강호에 누워 갈매기를 이웃삼고 어부와 화답하는데, 어찌하여 꿈결 같은 세상에 말이 이렇게도 많으냐는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고독감과 한가한 경치를 백구와 어옹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65)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 pp. 36~39 참조.

다음은 유배생활의 고독을 읊은 시조이다.

던던반측 못이른잠 스오경의 닭이운다
시비를 열고보니 눈이오고 달리로다
엇지타 유벽산촌의 기는 지저 (風雅 394)

가지 엷는 남기 엷고 장원 엷는 집이 엷다
부모 엷는 즈손 엷고 나라 엷는 도정 엷다
엇지타 타향의 나홀노 의지업서 (薪島日錄 81)

風雅 394에는 작가가 밤을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중에 사오경이 되어 닭이 운다. 사립문을 열고 보니 눈이 오고 달만 비출 뿐 아무도 없는데, 어찌하여 개는 짖느냐며 配所에서의 寂寞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薪島日錄 81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작가의 외로움을 한탄하며 읊고 있다. 가지 없는 나무도 없고 담 없는 집이 없으며,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나라 없는 조정도 없는 법인데 어찌하여 자신은 타향에 홀로 오게 되어 의지할 곳이 없느냐고 하고 있다.

2) 육체적 고통과 還故鄉의 소망

이세보는 薪知島에 圍籬安置되어 추위와 혹서, 병고와 해충에 시달리며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세보는 선천적으로 병약한 몸이었기에 이러한 유배생활의 고통은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겨울에는 모진 추위, 여름에는 모기 따위의 해충, 그리고 늘 기근과 병고로 시달리는 육체적 고통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빈디 베틀 네 드르라 쥬리고 병든 몸이
밤마다 네게 썩겨 한 곳도 성헌 데 업다
그중의 파리 모기야 일너 무삼 (風雅 189)

등잔불은 어둑어둑 장마비는 쥬룩쥬룩

병든 몸 홀노 누어 썩기느니 모기로다
지금의 각장 장관 다 어디 간고 (風雅 211)

이세보는 配所에서 병충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4수에 걸쳐 읊고 있다.⁶⁶⁾ 風雅 189는 유배지에서의 삶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작가의 고통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신지도는 섬이었고 습했기 때문에 해충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리고 병든 몸이 밤마다 빈대와 벼룩에게 뜯겨서 한 곳도 성함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風雅 211 역시 작가가 유배지에서 여름에 장맛비가 내릴 때에 병든 몸으로 모기에게 고통을 받는 모습을 읊은 것이다. 이러한 생활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여 작가 자신의 고통을 전달하는 방법은 관념적인 소재들에서 올 수 있는 간접성과는 달리 훨씬 직접적 전달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유배지에서 사시사철 뱀과 모기 등의 충해는 평소 병약했던 이세보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 유배생활의 처절한 고통은 어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還故鄉을 소망하는 노래로 표출된다.

스통오달 너른 턴지 가고 오면 다 보리라
병드러 누은 몸이 한양천니 어레웨라
지금의 신무익흐니 출안을 부러 (風雅 379)

남풍의 가는 구름 한양 천니 쉬우리라
고신 눈물 쓰다가 임계신 데 뿌려 쥬렴
언제나 우로를 입스와 환고향을 (風雅 169)

風雅 379는 날개 없는 작가 자신과 북쪽 서울을 향해 마음껏 나는 봄기러기를 대비시키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을 읊고 있다. 세상 넓은 천지에 가고 올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볼 수 있겠지만 병들어 配所에 누워 있는 자신의 처지에 한양은 너무 먼 거리라는 것이다. 風雅 169에는 남풍에 가는 구름은 한양천리 길을 쉽게 갈 것이니, 적소에 있는 외로운 자신의 눈물을 싸다가 임계

66) 병충해로 인한 고통을 읊은 작품은 총 4수로 위에서 인용한 작품 외에 風雅 184, 風雅 190이 해당한다.

신 곳에 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⁶⁷⁾ 언제쯤 임금의 은혜를 입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약 없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은 노래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세보의 유배시조는 대부분 유배생활의 悔恨과 고독 같은 심리적 고통과 추위와 혹서, 병고와 해충에 시달리는 육체적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다. 작가는 그 고통의 원인을 타인이나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不忠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혹독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모든 죄를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이세보의 비판과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배지에서의 고독한 감정과 육체적 고통을 백구, 닭, 개, 나무, 빈대, 벼룩 등 자신의 삶 주변에서 늘상 대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동물들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유배생활의 비애를 관념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세보의 유배시조는 자신이 유배지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읊은 것으로, 병약한 몸이면서도 解配를 소망하며 잠시라도 괴로움을 잊고자 했던 感傷的인 抒情詩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애정상사의 대중성

조선 건국과 더불어 새로운 정교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儒學은 이론적 空理空論으로 전개되면서 강하게 비판받게 된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이러한 유교적 봉건제도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붕괴되고, 서민 의식의 대두와 함께 문학에 있어서도 판소리와 민요, 시조 등에 남녀 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각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기본적으로 남성중심적 문화였다. 소위 ‘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상징되는 유교문화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르게 하여 집안을 거느리고, 나아가 천하를 경영하는 데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배층인 사대부들의 문학에서도 옛 성현들을 본받아 자신을 수양하고, 국가의 치란을 논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려 천하를 경영하는 문제 등 남성중심적 양상이 나타났다.

시조에서 애정을 다룬 작자층은 주로 기녀계층이거나 평민계층들이었다. 시조라는 양식이 본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감정을 서정적으로 형상화시킨

67) 진동혁, 앞의 책, p. 247.

측면이 강한 詩歌樣式⁶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사회의 통념상 애정이라는 관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대부들이 시조 속에서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했다고 해도 그것은 대개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애정에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애정시조류의 작품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한 시조에서는 임(임금)에 대한 나(화자)는 여성화된 나로서 어디까지나 임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만을 표출했으며, 그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의 변이형태인 것이었다. 즉, 이러한 類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애정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기보다는 忠君戀主之詞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正一品의 爵號를 받고 慶平君으로 封君도 했으며, 여러 차례 중앙 관직을 역임한 왕실 종친 사대부 이세보가 104수나 되는 애정시조를 남겼다는 사실은 큰 변화양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 시대 이정보 등이 사대부의 신분으로 애정시조를 지었으나 12수⁶⁹⁾에 그쳤을 뿐이었다.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철저한 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그의 시조에 수없이 등장하는 기녀들의 이름이나 風雅(大) 를 간행한 후 3년 뒤인 을축년(1865년)에 別風雅 를 꾸며 그의 愛妓인 瓊玉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⁷⁰⁾ 따라서 그의 애정시조를 통해 이세보가 애정을 인간의 본능적 정서로 인식하며, 相思의 情炎과 이별의 아픔 등 애정감정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南薰太平歌 계열로 대표되는 19세기 대중시조와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애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인간은 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인간사회에서의 애정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발원점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제재가 되어왔다. 문학이 인간 감정의 표현이며, 그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詩歌라고 한다면 애정이 詩歌의 주제가

68)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0, p. 38.

69) 이정보는 18세기 사대부 시조작가로서 시조의 내용과 형식에 대담한 과격을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 등 이견이 많지만, 그의 애정시조는 단형시조 9수와 장형시조 3수를 합쳐 도합 12수로 전해진다. (朴信男, 「朝鮮後期 兩班時調 研究」, 韓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p. 72 참조.)

70) 別風雅 뒷 표지 내면에 이세보의 親筆 大字로 “乙丑榴月下澣書贈絕代名妓瓊玉”이라 쓰여 있다고 한다.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39.)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고전시가사를 살펴보더라도 일찍부터 고조선시대에 광리자고의 처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공후인』과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고 하는 『황조가』가 있음으로써 애정이 어느 여타의 주제보다도 일찍부터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 고려 말엽에 수입된 주자학에 입각한 남녀유별의 엄한 도덕율로써 남녀 간의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게 된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유학의 이념 아래 남녀 간의 애정을 정욕이라 하여 금기시 하였고, 이 정욕은 인간의 本然之性을 덮어버려 죄악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겼다. 군자는 학문을 통하여 존양성찰 함으로써 人慾의 기미를 미리 알아 막아내는 것을 최상으로 생각했으며, 군자의 시는 언제나 道心에서 우리나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⁷¹⁾ 따라서 사대부들은 남녀 간의 애정을 드러내 놓고 읊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이세보는 평시조라는 형식 속에 솔직하고 대담하게 남녀 간의 애정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그가 노래한 애정은 사설시조에서 나타난 적나라한 肉欲의 기탄없는 詠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본성이자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이세보의 애정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연분 엮는 입이 엮고 입 엮는 연분 엮다
정 엮쓰면 입 잇쓰며 입 잇쓰면 정 엮스라
아마도 인간의 유란무란은 임스랑인가 (風雅 361)

위 시조는 이 세상에는 인연이 없는 입이란 없고, 입이 없으라는 연분도 없고, 情이 없으면 어떻게 입이 있을 수 있으며 입이 있다면 어찌 情이 없겠느냐고 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有難無難은 남녀 간의 사랑 문제에 달렸다고 읊고 있다. 작가는 남녀 간의 애정이 사람이 사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시조들에서도 이세보는 애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꽃과 나비와의 관계에 비유하며 전달하고 있다.

71) 손오규, 퇴계시가예술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2, p. 35 참조.

꽃치 호접을 몰라도 그 호접이 쓸 데 없고
호접이 꽃을 몰라도 그 꽃치 쓸데 없다
허물며 스릅이야 다 일러 무삼 (風雅 88)

나뭇 모를 꽃시 업고 꽃모를 나뭇 업다
티도 잇난 고흔 꽃해 풍채 도흔 범나뭇이라
아마도 꽃본 나뭇요 물본 기력인가 (風雅 90)

위 시조들은 모두 꽃과 나비를 통해 인간 본성인 남녀 간의 애정을 감추고 자제해야 할 性情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애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꽃을 여자로, 나비를 남자로 해서 사랑하는 남녀 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노래한 것이다.⁷²⁾

風雅 88은 꽃이 호접을 모른다고 하면 그 호접의 존재가치는 쓸 데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호접이 꽃을 모른다고 하면 그 꽃 또한 아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감정 없는 꽃과 微物인 나비와의 사이도 그럴진대 감정 있는 사람의 경우야 다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남녀 간 애정의 당연성을 읊고 있다.⁷³⁾ 風雅 90은 남녀 사이의 애정을 꽃과 나비의 친밀성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감정 없는 꽃이라도 나비를 모르는 꽃이 없고, 또 아무리 微物인 나비라도 꽃을 모르는 나비는 없는 법인데 더구나 태도 있는 고운 꽃에 풍채 좋은 범나비가 앉았으니, 반가운 사이로 말하는 俗諺 중에 ‘꽃을 본 나비요, 물을 본 기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며 반가와 하겠느냐고 읊은 것이다.⁷⁴⁾ 이러한 ‘꽃 본 나비, 물 본 기러기’라는 종장의 俗諺 인용은 이세보의 애정시조를 통속적으로 느끼게 만든다.

이와 같이 이세보는 유교이념 아래에서 사대부들이 정욕이라 금기시하며 부정하던 ‘애정’이라는 주제를 인간본연의 정서로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애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대부라는 신분에 맞게 결코 속되

72) 이세보의 애정시조 중 위에 인용한 작품 이외에도 風雅 363, 風雅 366의 작품이 사랑하는 남녀 간을 꽃과 나비로 비유하고 있다.

73)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p. 303.

74) 진동혁, 위의 책, p. 304.

지 않게 표현되고 있으며, 점잖은 어조로 애정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2) 相思의 情炎과 離別의 아픔

조선시대는 유교윤리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였으므로 유교윤리를 중심으로 문학적 정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시조에서 애정은 忠義의 등가물이며, 추상명사로 계열화되는 심리상태 역시 忠·孝·仁·義·禮·智와 같은 유교적 조화의 세계관에서 비롯된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忠義의 등가물이나 유교적 조화의 세계관 안에서만 표현되던 애정은 18세기 이정보를 거치면서, 19세기에는 애정이라는 주제를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

어느 갈래이든 애정을 노래한 詩歌 중에는 이별을 읊은 것들이 많다. 원래 환경이 다르게 자라온 남녀가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이 뜻대로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법이다. 이별은 그 자체가 그리움과 외로움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는 우리 민족의 恨의 정서와 어울려 다시 이별을 노래하게 되는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은 매우 서럽고 애닦은 심정을 자아내기에 현대의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래되고 있다. 이별노래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사실은 애정이 성취되었을 때 보다는 사랑의 감정에 목말랐을 때,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을 때에 애정의 정서가 더 극대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이란 사랑하는 상대가 이를 수 없는 대상일 때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며, 애정을 회구하는 심성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심리적 갈등은 담담한 어조의 고백보다는 과장된 슬픔의 어조로 표현했을 때 더욱 실감나게 전달될 것이다. 이세보 역시 ‘애정에서 오는 희열이나 쾌락을 읊은 것이 아니라 애정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묘사’⁷⁶⁾하고 있다. 이러한 이세보 애정시조의 특징은 19세기 대중적 음악의 성격으로, 남훈태평가 계열의 작품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75) 박철휘, 앞의 책, p. 40.

76)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하우, 2000, p. 283.

흥중의 불이나니 불 꺼주리 님 잊쓰리
인간의 물노 못 끄는 불이라 업것마는
엇지타 상스로 난 불은 물노도 못 꺼 (風雅 103)

風雅 103은 相思의 情炎을 토로하는 노래들이다. 작가는 인간사에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시 되는 것은 相思의 정임을 강조하면서 相思로 인한 불을 꺼줄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님 밖에 없다고 한다. 인간 세상에는 물로 못 끄는 불이라고는 없는데, 님을 그리워하여 가슴 속에 난 불은 물로도 못 끈다고 노래하여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相思의 애처로움을 읊고 있으나, 相思의 감정을 극복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그 감정으로 파고들고, 그 相思의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즉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그저 막연한 슬픔에 자신을 맡기면서 相思의 감정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의지나 열정도 보이지 않고, 정서 자체를 중요시하고 부각시킨다. 이세보 애정시조의 이러한 특징은 “성취를 향한 지향의 부재 속에서 추상적 그리움으로 일관”하는 19세기 통속적 대중시조들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⁷⁷⁾

이세보의 애정시조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이별을 노래한 작품들이다.⁷⁸⁾

타든 말 머무르고 손잡고 다시 안져
다정이 이큰말이 우지 마라 니 속 탄다
지금의 은원 업시 이별되니 슈히 불가 (風雅 136)

위 시조는 이별하는 현장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남성화자가 달래는 형식으로

77)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188.

78) 이세보의 애정시조를 정서표출의 양상 면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구별해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것이 風雅 88, 89, 90, 91, 92, 93, 111, 118, 215, 275, 279, 363, 366, 374, 381, 398의 16수뿐이고, 나머지 88수가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애정시조라 할 수 있다 (신충범, 「이세보 시조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29 참조).

되어 있다. 대화체의 어조로 이루어진 이 시조는 남성화자가 타고 가던 말을 머물게 하고 임의 손을 잡고 앉아서 다정하게 이른 말이 “울지 마라, 내 속 탄다. 지금의 慇懃없이 이별되니 속히 다시 상봉하자”고 입을 달래고 있다.⁷⁹⁾ 이렇게 이별현장을 그리고 있는 작품에서도 이별 후에 다시 만날 구체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고, 슬픔 자체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세기 대중시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음에 인용된 이세보의 애정시조와 南薰太平歌 계열 시조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임 이별흐든 날의 니 죽어 모르드면
 못 이져 생각 업고 이몸의 병 안 들년이
 엇지타 스라와셔 이 익을 석어 (風雅 140)

님 니별 흐든날 밤에 나는 어히 못죽엇노
 한강슈 김흔 물에 풍덩실 빠지련만
 지금에 사라잇기는 임보랴고 (南薰太平歌 119)

이세보의 시조 風雅 140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임 때문이었는데, 임과 이별한 현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자신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南薰太平歌 119에서도 임과 이별한 지금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니, 이별하던 날 밤에 한강물에 빠져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위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임과의 헤어짐으로 인해 그 헤어짐을 극복하고 다른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지금 헤어진 상황의 극복할 수 없는 슬픔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의 감정은 헤어짐으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슬플 뿐이며, 떠난 임을 다시 만나겠다거나 하는 어떤 극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아 대중적 · 통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밤중만 외기력이 네 우름 체량흐다
 근원이 무어신고 즈싱도 서러헌다

79) 진동혁, 앞의 책, p. 316.

우리도 타향의 임보니고 너를 불상 (風雅 138)

위 시조는 시적 화자의 이별의 恨을 외기러기에 기탁하여 읊은 것이다. 기러기는 전통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使者이지만, ‘ 짝 잃은 외기러기 ’는 관습적으로 이별 애상을 함의하고 있다. 초 · 중장에서 밤중에 처량히 우는 짝 잃은 외기러기의 표상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종장에서는 서정적 자아의 내면적 심리와 等價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별의 고통은 짐승까지도 서러울 만큼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는 있으나 그러면서도 다시 상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이세보 애정시조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애정’이라는 인간 본연의 정서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肉談調로 흐르지 않으면서 정서적 그리움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전기 사대부 시조 창작 관행에서 정서적 그리움은 오로지 연군시조의 경우에만 해당되었고, 18세기의 사설시조에 있어서도 여성은 주로 性的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이세보 애정시조의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시정 풍류관의 일반적인 흐름이었다. 방각본 가집 남훈태평가 계열 가집에 실린 19세기 신작 시조시들 중 51%가 애정시조이며, 가곡창 가집 수록 19세기 신작 시조들도 강호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랑과 별리를 다루는 데 집중되고 있다.⁸⁰⁾ 또한 이세보의 작품 중 6편⁸¹⁾은 시조창 가집, 일석본 가곡원류 4권에 실렸다 한다. 가집에 실렸다는 것은 개인시조집에만 수록된 경우보다 한결 대중성을 띠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19세기에는 정서적 그리움을 노래하는 것이 시조문학사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세보의 애정시조 역시 시정 풍류관의 문학적 관습에 따라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풍류관에서 문학적 관습에 의해 창작된 이세보의 애정시조 중에는 다음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유희성이 강한 작품들이 발견된다.

원슈의 이별 두 즈 아도 쌍쌍 두다려서
인간의 다 업쓰면 청춘이 덜 늙으련이
엇지타 이 몫슬 글즈를 이제가지 (風雅 99)

80)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130.

81) 風雅 97, 105, 119, 120, 376, 385.

이 시조는 진지한 맛이 적고 흥미 위주로 되어 있다. 이세보의 애정시조 중 가장 강한 말투와 태도의 노래로, 이별을 증오하는 화자의 한 맺힌 생각이 ‘원슈’, ‘쌍쌍’, ‘몹슬 글썽’ 등의 거친 시어를 통해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별’이란 두 글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다는 모티브는 사설시조에서 즐겨 활용되던 것인데, 이세보는 그것을 평시조의 틀 안에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설시조의 평시조적 수용은 19세기 대중적 풍류시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어낸 작품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세보의 애정시조에는 애정에 대한 표현이 진솔하다 못해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이 없는 슬픔의 과잉 노출로 인해 통속적인 대중시조의 그것과 닮아 있는 것이다.⁸²⁾ 그러나 이러한 이세보의 정서 노출은 유교윤리가 전체를 지배하던 사회 속에서 유교윤리의 주제를 벗어나 개인적 경험과 그로 인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相思’와 ‘이별’을 관념이 아닌 실체로 드러내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그의 감정은 현장성을 획득하고 있다.

3) 여성화자의 목소리

주로 남성들에 의해 창작·향유되어온 전대의 시조문학에서 여성화자의 사용은 문학적·역사적 상황 조건 때문에 상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⁸³⁾ 그래서 대개 사대부 시조에서 나타나는 애정형상은 忠君戀主之詞처럼 연인을 이상화시키고 사랑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노래했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향락적이거나 유희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104수나 되는 애정시조를 남긴 이세보는 기녀를 화자로 내세우면서 기녀와 풍류객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그녀들의 정서를 톺아내듯 그려내고 있다.

후스를 위훤미요 원심은 아니연만
가면 몹슬년 되니 다시 돌려 못 가리라

82)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p. 268.

83) 최미정, 「조선 초·중기 여성화자 국문시가와 풍류」, 어문학 64, 시문학회, 1998, p. 399.

두어라 이도 니팔즈니 든 정 어이 (風雅 125)

이몸이 무삼 디로 창가 녀즈 디여 나셔
정 드려 못 잇는 낭군 이별이 어이즈져
두어라 전싱시니 후싱의나 (風雅 137)

무단이 슝보고 슝스스즈 달니더니
월미심 일미괴의 못산다니 웬말이요
엇지타 경박낭군이 정 어려워 (風雅 132)

風雅 125에 나오는 화자인 여인은 연인과 다툰 모양이다. 여성화자는 그 다툰이 사랑하는 임과의 後事를 위한 것이지 원망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는데, 그 다툰은 여자가 정이 없어서 그런다고 오해한다. 그렇다고 여자는 자신이 그냥 가버리면 상대방이 자신을 몹쓸 여자라고 욕할 것이니, 다시 마음을 돌려 어차피 이것도 자신의 팔자이니 이미 든 정을 어찌할 것이냐고 말하고 있다. 정든 임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감정의 기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風雅 137은 자신이 대체 무슨 죄로 娼家女子가 되어서 情들어 못 잇는 낭군과의 이별이 어찌하여 갖느냐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임과의 사랑을 後生에서나 이루어보자고 하고 있다. 風雅 132는 경박한 낭군과의 정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누구나 사랑을 맺기는 좋아하지만 그 사랑을 오래토록 유지하지 못하고 경박스럽게 끝내는 것을 원망하고 경계하려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세보 자신이 기녀로 환위하여 부른 시조에서 애정 감정은 매우 사실적이다. 작자와 화자의 일치를 기본으로 해 왔던 사대부 시조의 전통으로 보나, 사대부와 기생의 현격한 신분 차이를 보더라도 기존 사대부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조들은 다툰의 현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리해서 작품화하고 있다.

의 업고 정 업쓰니 아셔라 나는 간다
펼치고 가는 나삼 다시 찬찬 뷔여잡고

눈물로 이룬 말리 니 한 말 듯고 가오 (風雅 127)

화촉동방 만난 연분 의 아니면 미덧스며
뜻는 히 지는 달의 정 아니면 질겨슬가
엇지타 한 허물노 이다지 설게 (風雅 128)

風雅 127에는 2명의 화자가 등장한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시조로, 남자가 의리도 없고 정도 없으니 자신은 이제 떠나겠다며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난다. 그러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말 좀 듣고 가라며 남자의 비단 적삼을 붙잡고 있다. 이 작품은 대화체의 표현과 묘사적 문체를 사용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남자의 분기탱천한 모습과 그러는 남자의 소매 자락을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여자의 행동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표현기법에서 자신의 정서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던 기존의 사대부 시조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한다. 風雅 128은 첫 번째 작품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떨치고 가는' 낭군의 '나삼'을 부여잡고 하는 여인의 하소연이다. 이 시조는 신랑신부가 洞房에서 첫날밤에 만난 연분이 義가 아니면 믿었겠으며, 세월을 지내오면서 情이 아니면 즐기지를 앓았을 것인데 어찌해서 한 가지 허물로 인하여 이처럼 서럽게 하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여인의 사랑 노래에 해당되는 이들 작품의 두드러진 양상은 추상적인 사랑, 또는 애정시가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사모와 그리움, 기다림, 이별의 정한 등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세세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노래에는 사랑의 고상한 묘사나 관념적인 푸념, 또는 과장된 표현이 없는 대신에 진솔한 여인들의 다양한 정서와 언어들에 배열되어 있다. 이처럼 여성 화자를 내세운 애정시조는 입에 대한 衷情을 더욱 고양시킨다는 극적 효과가 있다. 사대부 관료인 이세보가 이처럼 봉건적인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 여성의 처지로 돌아가 적나라한 애정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은 개성적 표현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세보의 애정시조는 조선 전기 시조의 핵심이었던 사대부들의 관념성을 탈피하고, 기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애정이란 주제를 과감하고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진지한 문학의 한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相思'와 '이별'을 관념이 아

닌 실체로 드러내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그의 감정은 현장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의 시조가 “인간 정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완강한 중세적 규범에 억눌려 문학사의 한 표면에 떠오르지 못하던 여성취향의 정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⁸⁴⁾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84) 신충범, 「이세보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60.

V. 교육적 의의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⁸⁵⁾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 관련 목표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라고 설정하고 있다.⁸⁶⁾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볼 때, 시조교육의 목표는 시조 작품의 기본 원리와 지식을 익히고, 인간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시조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중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은 시기별·작가별·주제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

교재	단원명	작품명	작가	시대	형식	
중1-2	4. 시의 세계	아버이 살아실 제	정철	16세기	평·연	
	"	동기로 세 몸 되어	박인로	16세기	평·연	
	"	바람이 눈을 몰아	안민영	19세기	평·연	
2-1	3. 우리고전의 맛과 멋	이고 진 저 늙은 이	정철	16세기	평·연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미상	18세기	사설	
3-2	4. 고전문학의 감상	사랑이 그 어떨더냐	이명한	17세기	평·단	
		"	사랑 사랑 굽이굽이	미상	18세기	사설
		"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16세기	평·단
		"	뿔버들 골라 꺾어	홍량	16세기	평·단
		"	산촌에 눈이 오니	신흙	16세기	평·단
		"	논밭 갈아 김 매고	미상	18세기	사설
		"	잔들고 혼자 앉아	윤선도	17세기	평·연
		"	오우가	윤선도	17세기	평·연
		"	5-(1) 대숲의 사계	오우가	윤선도	17세기

85)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20.

8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303.

<표 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

교재	단원명	작품명	작가	시대	형식
국(상)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하여가	이방원	14세기	평·단
	"	단심가	정몽주	14세기	평·단
	6. 노래의 아름다움	어부사시사	윤선도	17세기	평·연
	"	어더 너 일이여	황진이	16세기	평·단

현행 중등 국어 교과서의 시조 작품 수록양상을 보면 조선전기인 16세기 작품들이 대부분이며, 조선후기 작품들도 17·18세기에 편중되어 있어 19세기 작품은 안민영의 작품 한 편이 수록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작품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회유 1수, 忠孝 등의 三綱五倫 4수, 자연을 예찬하거나 또는 그 속에서 한가로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 7수, 戀情 5수로 나타난다. 또한 문학 교과는 1~10학년에서 이르는 공통기본 국어 과목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다양한 시조 작품들이 수록되었으나, 공통기본 교육과정 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작품들의 중복 수록과 작품 성향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표 3>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

번호	작품명	작가	주제	시대	형식	수록횟수
1	흔 손에 막디 잡고	우탁	탄로	14세기	평·단	3
2	춘산에 눈 녹인 바름	"	탄로	"	"	2
3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애상	"	"	6
4	구름이 무심튼 말이	이준오	우국	"	"	1
5	백설이 즈자진 골에	이색	"	"	"	2
6	가마귀 싸호는 골에	정몽주의 母	경계	"	"	1
7	하여가	이방원	회유	"	"	3
8	단심가	정몽주	절개	"	"	4
9	오백년 도읍지를	길재	회고	15세기	"	4
10	홍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	"	"	5
11	눈 마즈 휘여진	"	절개	"	"	1
12	선인교 나린 물이	정도전	회고	"	"	3
13	가마귀 꺾다 하고	이직	풍자·훈계	"	"	2
14	삭풍은 나무 곁회	김중서	기개	"	"	2
15	대초 불 불근 골에	황희	강호한정	"	"	1
16	강호사시가	맹사성	"	"	평·연	7
17	수양산 바라보며	성삼문	절의(節義)	"	평·단	2

18	이 몸이 주거가서	"	"	"	"	9
19	방 안에 헛는 촉불	이개	"	"	"	5
20	천만 리 머나먼 길에	왕방연	연군	"	"	3
21	가마귀 눈비 마자	박팽년	절의(節義)	"	"	1
22	간밤의 부던 브람에	유응부	"	"	"	1
23	추강에 밤이 드니	월산대군	자연친화	"	"	5
24	므음이 어린 후니	서경덕	연정	16세기	"	5
25	므음아 너는 어이	"	탄로	"	"	1
26	어부가	이현보	강호한정	"	평·연	4
27	농암에 올라보니	"	"	"	평·단	1
28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연정	"	"	13
29	내 언제 무신하여	"	"	"	"	2
30	어저 내일이야	"	"	"	"	7
31	청산리 벽계수야	"	"	"	"	2
32	청산은 내 뜻이요	"	"	"	"	2
33	산은 냇산이로되	"	인생무상	"	"	1
34	밧버들 갈히 것거	홍랑	연정	"	"	6
35	이화우 훗썩릴 제	계랑	"	"	"	5
36	오류가	주세붕	교훈	"	평·연	3
37	삼동에 뵈웃 님고	조식	연군	"	평·단	2
38	두류산 양단수를	"	자연예찬	"	"	4
39	도산십이곡	이황	학문·자연친화	"	평·연	11
40	청량산 옥륙봉을	"	자연친화	"	평·단	1
41	오리의 짧은 다리가	김구	祝壽	"	평·연	1
42	한겨십팔곡	권호문	강호한정	"	"	1
43	말 업슨 청산이요	성혼	자연친화	"	평·단	4
44	고산구곡가	이이	강학·자연친화	"	평·연	1
45	북창이 불다커늘	임제	연정	"	평·단	1
46	청초 우거진 골에	"	인생무상	"	"	1
47	어이 얼어 잘이	한우	연정	"	"	1
48	지당에 비 썩리고	조현	강호한정	"	"	1
49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	"	"	11
50	풍상이 셋거친 나레	"	감축	"	"	3
51	재 너머 성권룡 집의	정철	강호한정	"	"	5
52	훈민가	"	교훈	"	평·연	8
53	장진주사	"	음주취락	"	사실	1
54	내 마음 버혀 내어	"	연군	"	평·단	1
55	노프나 노픈 남게	이양원	당쟁 풍자	"	"	1
56	짚방석 내지 마라	한호	안빈낙도	"	"	2
57	반중 조홍감이	박인로	孝	17세기	"	1
58	오류가	"	유교윤리	"	평·연	1
59	한산섬 들 불근 밤의	이순신	우국충절	"	평·단	1
60	가노라 삼각산아	김상헌	"	"	"	2
61	국치비가 10수	이정환	우국	"	평·연	1
62	견회요	윤선도	연군	"	"	1
63	만홍	"	강호한정	"	"	6
64	어부사시사	"	"	"	"	11
65	오우가	"	영물예찬	"	"	4
66	노래 삼긴 사름	신흙	노래를 통한 시름 해소	"	평·단	4
67	봄이 왔다 흐되	"	애상	"	"	1
68	산촌에 눈이 오니	"	강호한정	"	"	2

69	정산도 절로절로	송시열	자연친화	"	"	4
70	초암이 적료흔디	김수장	강호한정	18세기	"	2
71	서방님 병 들어	"	연정	"	사설	1
72	전원에 나른 흥을	김천택	강호한정	"	평·단	3
73	서검을 못 일우고	"	"	"	"	1
74	강산 죠흔 경을	"	"	"	"	1
75	붉가버슨 아해 들리	이정신	풍자	"	사설	1
76	딕암이 뵈다 올고	"	자연친화	"	"	2
77	국화야 너는 어이	이정보	영물예찬	"	"	4
78	농가구장	위백규	전원생활	"	평·연	2
79	하하 허허 흥들	권섭	풍자	"	평·단	1
80	뉘라셔 가마귀를	박효관	孝	19세기	"	1
81	님글인 상사몽이	"	연정	"	"	1
82	매화사	안민영	영물예찬	"	평·연	4
83	충신은 만조정어요	작가미상	나라의 태평기원	18세기	평·단	1
84	우레갯치 소르나는	"	연정	"	"	1
85	기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	연정	"	사설	2
86	개야미 불개야미	"	풍자	"	"	1
87	꿇도리 저 꿇도리	"	연정	"	"	4
88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	"	"	"	7
89	논밭 갈아 기움 매고	"	전원생활	"	"	2
90	님이 오마 흥거늘	"	연정	"	"	3
91	두터비 꼭리를 물고	"	풍자	"	"	9
92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	"	"	"	5
93	브를도 쉬여 넘는	"	연정	"	"	1
94	식어마님 머느라기 낫바	"	원망	"	"	5
95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한탄	"	"	5
96	창 밖이 어른어른커늘	"	연정	"	"	1
97	한숨아 세한숨아	"	한탄	"	"	2
98	흥 눈 멀고 흥 다리 저는	"	풍자	"	"	1
99	내게는 원수 가 업서	"	연정	"	"	1
100	대천바다 한가운데	"	"	"	"	1
계						302

현행 18종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는 총 100작품으로 수록된 총횟수는 302회이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면 공통기본 국어 교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킨다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동일 작품의 중복 수록과 시기별·주제별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인 16세기 작품들이 대부분이며, 조선후기 작품들도 18세기에 편중되어 있어 19세기 작품은 안민영과 박효관의 작품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작품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강호한정류가 27수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戀情 21수, 우국 충절류 17수, 忠孝 등의 三綱五倫 10수 등으로 나타난다.

현행 교과서들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 가운데 19세기의 시조는 가곡원류 계열인 안민영과 박효관의 작품이 실린 것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시조는 여항-시정문화와 관련된 대중적 성향이 우세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급 음악적 성격의 가객들의 작품만을 교과서에 수록해 놓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당시 시조 장르의 특색과 변모 양상을 인식시켜 주는 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시조를 교육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애정 고취, 선인들의 미의식 체험, 역사와 시대감각 수용, 자기 성찰 등을 고루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성향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시조에 대한 흥미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시조 장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현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내용 체계를 검토하여,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자기체험을 통한 전통가치의 전수’,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해’, ‘시조문학사의 이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체험을 통한 전통가치의 전수

문학교육을 통해 심미성을 함양하거나 정서적 일체감을 획득한다는 측면은 문학적 감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학 학습에서는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문학적 내용이나 형상을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轉移나 변화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훈민시조는 그 교훈적 성격이 유학적 윤리의식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의 문학 의식이 문학을 경학이나 유학적 사고방식에서 유리시키지 않았던 것과도 관계가 있다. 이른바 ‘제도적 문학관’ 또는 ‘관도적 문학관’ 중의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문학을 그 자체의 흥을 위해 긍정적인거나 개인의 사적인 결핍 상황을 진술한다거나 하는 식의 서정 양식이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⁸⁷⁾ 따라서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오류이라는 유교 덕목, 나아가 자신들이 추종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형상화의 과

87) 신연우, 「16世紀 士大夫 時調의 교술적 성격과 후기의 변모」, 우리어문학회, 1997, p. 162.

정을 거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서정을 통한 정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드러내 교시적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훈민시조에서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청자에게 말건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함축된 청자가 구성원리로 되어 있다. 유교적 윤리를 그 핵심으로 하는 시조 작품은 청자지향의 능동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즉 훈민시조에서는 화자가 대부분 양반층 사대부들이며, 청자는 일반 백성들이나 그들의 자제였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 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여라, ~호여라’ 식의 우월한 시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 이치이자 天理에 바탕을 둔 도덕적 당위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더라도 화자의 명령형 어조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당대 수직적 신분 질서 하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관계가 수평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훈민가류의 시가는 정서적 감흥을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정시 본연의 정서 유발이 없는 이상 아무리 쉽고 훌륭한 말투를 원용하여 진술하여도 생경한 관념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세기 사대부 시조작가 이세보도 여타의 사대부들과 같이 ‘인격수양’과 ‘사회교화’라는 목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르고 善良한 행동규범에 대해 노래하였다. 이세보의 도덕시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규범인 人倫을 실천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이상적 조화를 이루어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平天下’의 경지까지 나아가도록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인간의 도리인 孝와 朋友之交 등 五倫에 대해 읊었다. 그러나 이세보의 시조에는 전기의 훈민시조에서처럼 유학적 경학과 오류를 숭상하는 내용의 시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이 지나치게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서정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세보의 忠이나 孝, 그리고 朋友之交 등 전통가치인 五倫을 노래한 시조에는 유배라는 작가의 직접 체험을 소재로 정서를 표출한 작품들이 있어 교훈과 함께 정서적 감동도 주고 있는 것이다.

유배지에서 맞은 생일날이 촉매가 되어 부모형제를 그리워하게 되고(薪島日錄 84), 楸園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구성지게 내리는 장맛비가 계기가 되어 자신의 소식을 몰라 애태우고 있을 부모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읊으면서(薪島日錄 50) ‘孝悌’니 하는 용어를 특별히 쓰지 않고도, 또 명령투의 어법을 사용하지 않

고도 자연스럽게 시의 주제가 孝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조 문학을 ‘임금에게 忠誠하고 부모에게 孝道하여라’는 식으로 다분히 계도와 교훈을 위한 장르만으로 규정짓는 현대의 학생들에게는 유교 윤리라는 보편적 법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체험 속에서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서정성까지 띠고 있는 이세보의 도덕시조가 교육적으로 더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수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똑같이 부모에 대한 孝를 다룬 내용의 작품이더라도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원칙만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피부에 와 닿고, 단지 추상적으로만 생각되던 孝의 개념과 유배라는 작가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정의 표출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고 나오는 관념들은 어차피 피상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현실의 갖가지 욕망을 좇는 일에 눈이 어두워져 본 모습을 상실하고 사는 것이 요즘 이 시대 사람살이의 보편적인 양상이다. 더욱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가정 내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조차 끊긴지 오래다. 입시라는 제도 아래 급우들 간의 교우관계를 경쟁으로만 여기고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느껴볼 기회조차 없는 현대의 학생들에게는 孝의 가치와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참된 벗 사귀는 진리 등 전통윤리의 전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세상의 참된 질서 회복을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박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인간의 도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윤리가 사회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부에 있는 자발성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이세보의 시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한 가치를 학생들로 하여금 본연의 윤리 의식이 자발적으로 발동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이세보의 도덕시조는 전대 사대부들의 그것처럼 원칙론적인 입장에 서서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윤리에 대해 말하면서도 유배라는 자신의 특수한 체험을 통해 발화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정서적 감동과 함께 현재의 삶을 재조명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시조를 통해 조상들의 윤리관과 인생관을 확인하고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는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의 함양이라는 시조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조를 비롯한 문학작품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7학년>

-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현실 상황을 이해한다.
-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제8학년>

-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⁸⁸⁾

문학 작품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시대를 이해하는 일, 시대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문화의 형태를 이해하여 당대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각을 찾아보고 이해하며 나아가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갖는 일은 시조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뿐만 아니라 작가가 살고 있던 당시의 사회, 문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조문학 교육의 필요성은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미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작품 속에 반영된 그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세보의 『농부가』와 『달거리시조』는 우리 민족의 농경문화와 세시풍속에 대해 알려주고 있어 당시 시대와 문화의 형태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세보의 『농부가』는 農家의 일년 農政을 계절에 맞게 읊은 노래이다.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농기구를 정비하고 논 · 밭갈이에 바쁜 농촌의 들판 모습과 풀

8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55, p. 57, p. 91.

베기, 논갈기, 모내기, 김매기 등에 여념이 없는 농부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가난한 농민들이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여도 여러 가지 빚을 갚고 나면 여전히 춘궁기와 같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농부가』는 우리 민족의 삶의 근본이었던 농경문화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며, 세도정치와 혼란한 역사적 현실 상황 속에 나타난 농민들의 피폐한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세보의 『달거리시조』는 風雅(大) 의 44~55에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모두 12수가 한 작품군을 이루어 수록되어 있다. 이세보의 『달거리시조』 몇 수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 보름 달 밝으니 노쇼남녀 답교로다
 춘디의 옥축이요 슈역의 연화로다
 아마도 티평동낙은 상원인가 (風雅 44)

이월 청명 가절인가 빅오동풍 부러세라
 면산의 도든 풀은 기즈쥬의 즈최로다
 아마도 진디청빅은 이썸인가 (風雅 45)

오월 오일 오날인가 집집이 창포쥬라
 경도요 슈성곡은 명나슈변 슬프도다
 아마도 텃중가절은 굴원인가 (風雅 48)

칠월칠석 오는 비난 견우직녀 상봉이라
 슬솔은 명동방이요 오동은 낙금정을
 아마도 괴망의는 쇼즈첨인가 (風雅 50)

팔월쥬석 오날인가 빅곡이 등풍이라
 성디의 한민드른 원근업시 격양가를
 허물며 담박옥눈이야 일너 무삼 (風雅 51)

십이월 다 보너니 오날이 제석인가

금년은 금소진이요 명년은 명일니라

동즈야 술가득 부어라 송구영신 (風雅 55)

우리의 전통사회는 농경문화가 중심을 이루며 발전되어 왔다. 생산활동과 사회, 역사를 반영하며 농경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세시풍속이다. 위에서 인용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세보의 『달거리시조』는 매월의 節日과 세시풍속을 반영하고 있다. 즉, ‘정월-踏橋, 2월-淸明 · 寒食, 3월-삼진날, 4월-초과일, 5월-단오, 6월-삼복더위, 7월-칠석, 8월-추석, 9월-중양절, 10월-신도주, 11월-동지, 12월-제석’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민속적인 주제를 다룬 『달거리시조』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선조들이 節序를 맞는 정서를 공감해볼 수 있도록 해주며, 당대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현대의 학생들은 서구식 문화생활에 길들여져 왔다. 학생들의 현실 삶은 단편적이며, 반복적인 일상생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세보의 『농부가』와 『달거리시조』에는 우리 민족 삶의 근본인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경문화, 그리고 답교, 淸明 · 寒食, 삼진날 등과 같은 매월의 節日과 세시풍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세보 시조는 서구식 생활양식에 길들여진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선조들의 농경 생활과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또한 19세기는 역사상 민란소요기였고 정치적 파란과 탐관오리의 부정부패가 성행하여 피지배계층의 신음소리가 만연하던 때였다. 이세보 시조에는 당대 세도정치로 인한 관료들의 부패상과 농민들의 수탈상이 어느 역사책보다도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洞徵 · 里徵 등의 苛斂으로 고통 받는 民生苦를 읊으며 田政의 비리를 고발하기도 하고(風雅 307), 還政의 弊로 먹을 쌀조차 없는 가난한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였으며(風雅 296), 황구첨정, 백골징포 등 각종 협잡의 폐가 심한 軍布 弊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風雅 315).

삼정의 弊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을 묘사하고, 부패를 일삼는 수령들을 비판하는 이세보 시조는 마치 조선후기 혼란했던 시대상에 대한 한 권의 역사책과 같다. 학습자들은 이세보 시조를 통해 세도정치 하의 혼란스러웠던 시

대 배경과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입장에 감정이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에는 역사책에서는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역사의 ‘살과 피’를 느낄 수 있으며 그 감동도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세보 시조는 우리 역사가 근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곡과 모순에 대해 구체적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로 이행하는 우리 역사에 나타난 문제점과 당대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대사회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문화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학습자들은 우리 민족의 삶의 근본이었던 농경생활과 세시풍속 등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당시 민간 대중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농업은 국가적인 산업이었고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상이 참혹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고전은 이미 오래 전 시기의 산물로 사료적인 가치가 있고, 현재에도 일정한 정서적 영향력을 갖는다. 이세보의 시조를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역사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생활양식과 세시풍속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됨으로써 선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조 문학의 교육적 가치가 작품의 감상을 통해 문학적인 감수성을 신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향기를 음미하며,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을 키워주는 데까지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3. 시조문학사의 이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조를 비롯한 문학작품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9학년>

-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⁸⁹⁾

89)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2001, p. 120.

문학사는 일정한 사관을 가지고 문학작품과 작가와 유파 등 문학의 흐름을 유기적 전체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문학사는 단위문학을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조망하는 안목을 길러 준다.⁹⁰⁾ 또한 구체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통로를 마련해 주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시조를 비롯한 문학교육의 목적은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문학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데 있다.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평시조 양식을 벗어나 있다. 작품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탐학슈령 드리보소 입시날 칠스강을 뜻알고 흐엿쓴가
 성밭글 써나시면 어니 그리 실진한고
 저런 병의 먹는 약은 신농씨도 모르련이 (風雅 297)

용동성서 무스시의 퇴령을 진즉흐소
 방중약 흐기의는 현화불여 도용이라
 동일근고 삼반관속 불무인정 (風雅 337)

수령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風雅 297은 초장의 경우 2음보가 첨가되어 있고 중장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칙을 벗어나 4·4·4·4의 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風雅 337은 중장까지 4·4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개화기 신문에 발표된 시조들과 형태와 내용 면에서 흡사하다. 즉, 시조창 방식으로 되었다는 점과 이념의 토로, 4·4조의 경직된 리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개화기 시조는 1906년부터 1918년까지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 매체에 실린 애국계몽형 시조시들로, 거의 대부분이 시조창 시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자 투고 시조들이다. 개화기 시조의 특징은 첫째, 제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둘째, 한문식 통사구조로 되어있으며, 셋째, 중장 마지막 구의 생략과 넷째, 중장 초구의

9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三知院, 2004, p. 387.

변화를 들 수 있다.⁹¹⁾ 즉 고시조에서 상투적으로 쓰이는 어휘에 대한 빈도가 줄어든 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화기 시조의 특징 중에서 이세보 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목에 관한 것밖에 없다. 이세보는 주로 한자 어휘, 특히 한시의 칠언절구를 응용하여 4·4조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며, 종장의 마지막 구를 생략하고 종장 초구에 실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세보 시조는 개화기 시조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 작품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녹양 방초 저문 날에 울고 가는 백설도야
 소진 당의 후신으로 룝국합종 하라는가
 지금에 동춘서둘 가지스는 너와 일반 (大韓民報 제293호:1910.6.9 題目;백설도)

분슈업는 도서원아 각면 셔원 신축할계
 양안 성취 상고호여 각성 답쥬 원망 업계
 무업타 저 희식은 관장아 썸 지를 (風雅 290)

두 작품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자 어휘를 쓰고 있으며, 4·4조의 리듬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특히 종장의 마지막 구가 생략되어 있고, 종장 첫 구 역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개화기 시조의 양상이 개화기라는 상황에서 돌연 돌출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지속되던 양상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의 시조사적 의의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그로 인해 고시조와 20세기 초 개화기 시조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보는 19세기 중앙관료층 풍류객으로서 다량의 애정시조를 남겨, 18세기 중앙관료층이 중심이 되어 발달시켜 온 유흥적 시조의 전통이 19세기 시조창 향유객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비판시조를 통해 시조창 시조시가 지식인 비판문학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

91) 이에 대하여는 權寧珉, 「開花期 時調에 대한 檢討」, 學術院論文集 第15輯, 大韓民國 學術院, 1976, pp. 186~187 참조.

써 19세기 시조창 시조시와 개화기 시조와의 연계성을 최초로 가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⁹²⁾

고전문학의 문학교육적 함의는 당대의 인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다시금 내용의 변화와 맞물려 어떠한 양식적 변이를 겪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학 형식의 출현은 삶의 변모에 기인한다. 삶의 변모가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것이 다시 문학의 내용을, 마침내는 그 형식까지 재구성해 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세보는 조선후기 극심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유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아왔던 평시조 양식을 고수하며, 현실비판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에 따른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여실히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에 따른 것이라 보고 그들을 직접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세보의 시조에는 종장에 이르러 형식적인 일탈이 감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제의 변모가 형식의 변모를 야기하는 단초를 제시한다. 즉, 전통적 정형시인 시조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서는 ‘~러라’, ‘~노라’ 식의 종결체가 주는 悠長하고 완만한 느낌 보다는 종장 말구를 생략함으로써 단호한 비판 의지를 실감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개화기 시조와 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판소리나 평민가사의 어투를 도입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다채롭게 구사하고 있다. 또한 그를 통해 시조가 음악과 분리되는 징후가 뚜렷해졌다. 우리의 전통 시가는 음절수의 도식적인 배합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소간의 넘나들이 있더라도 의미의 율격을 갖추으로써 시적 자질을 확보했던바, 이것은 당시의 낭독법이 오늘날과는 다른 誦詠의 방법이었던 전통 속에서 적절했던 것이었다.⁹³⁾ 그러나 이세보에 이르면 음절수의 배합이 4·4조의 도식성을 보이게 되는데, 노래의 창작이 가창물에서 독서물로 전환되는 징표라 할 수 있겠다. 즉 음악과 문학이 복합된 장르에서 문학이 분리되어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세보에 이르러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세보의 시조가 근대적 문학장르로의 전환기적 성격, 즉 시조사적으로

92) 이동연, 『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 p. 223.

93)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97.

보아 근대적 징후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조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은 대부분 17·18세기에 편중되어 있고, 조선 말엽인 19세기 작품은 안민영의 연시조 작품 한 수만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공통기본 국어 교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킨다는 취지로 구성된 문학 교과서의 시조 작품 역시 동일 작품의 중복 수록과 시기별·주제별로 편중되어 수록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작품으로 국어 교과서에는 안민영의 연시조 『매화사』 한 수가, 그리고 18종 문학 교과서에는 안민영의 동일 작품과 박효관의 작품 『늪라셔 가마귀를』, 『님글인 상사뭉이』가 수록된 이유는 작품 자체의 문학성이 높고, 19세기가 가객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수많은 가집이 편찬되었다는 시대적 특징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 전기부터 계속해서 시조의 주요 주제로 등장해온 ‘자연예찬’이나 ‘孝의 강조’라는 작품만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놓는 실태는 우리 시조문학사를 총체적·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즉 근대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9세기에 나름의 대응을 하며 변모하는 작품을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재 중등교육과정 교과서의 시조 작품 수록 실태는 우리 시조문학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수록 양상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시조는 고시조대로, 현대시조는 현대시조대로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양식으로만 이해하게 만들었으며, 문학사적 측면에서 고시조가 개화기를 거쳐 어떻게 현대시조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총체적인 안목을 길러 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세보 시조는 시조창 형식을 향유한 대중적 성격과 개화기 시조와의 연계성이라는 점에서 19세기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평시조라는 양식이 19세기라는 혼란의 시대에 부딪히면 그 완강해 보이던 형식 속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기존에는 없던 현실비판의 내용이 주제로 등장하게 됨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가 20세기 초 개화기 시조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연관성을 설명해 줌으로써 시조라는 장르가 근대적 문학장르로 전환해 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개관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뿐만 아니라 그의 애정시조를 통해서도 조선전기 사대부들의 애정에 대한 관점과 표현이 후기에 이르러 어떻게 변모되고 있는가

를 추적해봄으로써 시조 양식이 근대적 정후들을 내포해 가고 있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교육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이 연구는 이세보 시조를 분석하여 그 특질을 살피고,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작가의 생애와 19세기 시조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보가 생존했던 19세기 조선 사회는 세도정치로 인한 모순과 백성들의 궁핍함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 시기였다. 구체적으로 세도정치로 인한 관료들의 정치 파탄, 그에 따른 민중의 항거, 천주교 박해, 동학사상의 배태 등은 당시 사회가 격동의 일대 전환기였음을 알려준다. 이세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으나 20세에 왕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높은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순탄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지만, 동생의 한림제수 문제로 세도가인 안동김씨 일가의 견제를 받고 전라도 신지도에 3년간 유배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 絶島流配는 그의 문필생활에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정치적 패배로 인한 좌절감과 생활고 등은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세보는 유배 경험을 통해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농민들의 참혹한 삶을 목격하면서 격앙된 어조로 현실비판시조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해배된 후에는 집권관료의 일원으로 내외직을 거치며 유배생활에서 겪었던 정치적 패배와 고통을 잊고자 수많은 애정시조를 지었다.

19세기 시조는 위로는 대원군을 비롯한 왕실에서, 아래로는 저층의 여항인까지 폭넓은 수용층을 확보하며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사대부적 미의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민적 미의식, 도시 대중의 유흥문화적 통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도시의 난만한 성숙과 유흥의 번성으로 수많은 가집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음악적 성격에 따라 ‘연회용 전문 공연 음악으로서의 가곡창’인 가곡원류 계열과 ‘대중적 풍류음악으로서의 시조창’인 남훈태평가 계열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조황, 이세보와 같이 순우리말로 작품 창작에 힘쓴 사대부들이 있어, 19세기에도 사대부 시조가 그 맥

을 유지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세보의 개인시조집을 통해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글을 짓는 틈틈이 餘技로 시조를 창작하던 관행 속에서 이세보는 순우리말로 시조를 지어 개인시조집을 엮었다. 조선시대 사대부 작가들이 한시를 통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때, 이세보는 우리말로써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세보가 시조시를 일상문학으로 활용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이세보의 국문시가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이세보의 도덕시조, 현실비판시조, 농부가를 통해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현실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보의 시조에도 조선조 초기 관료들의 시조가 가지고 있던 민풍 교화의 효용론적인 경향이 그대로 노정되어 있으며, 문학을 ‘載道之器’로 인식하고 經世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人慾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닦기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고, 忠과 孝, 참된 벗 사귀의 도리에 대해 노래하였다. 그러나 전대 사대부들의 지나치게 교훈적인 『훈민가』 류의 시조와는 달리, 이세보의 도덕시조에는 자신의 유배라는 체험을 통해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독자에게 감동과 교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세보는 유배생활 중 탐관오리들의 貪贓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래서 관료들을 비판하는 현실비판시조를 남기게 되는데, 이는 시조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세보는 고통 받는 농민들의 참상을 직접 드러내고, 그러한 원인이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있다고 여겨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관료들을 교화시키는 것이라 여겨 관료들의 소임에 대해 권계하였다. 또한 『농부가』에는 국가의 근본인 농촌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위기로 인식하여 농사의 중요성과 勸農, 농사의 어려움을 읊으며, 다른 작가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농민의 困苦한 현실상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세보가 전통적인 농경적 삶의 양식을 공동체적 삶의 문화로 인식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철저히 이해하여 대다수 백성들과 삶을 동질화하려는 의식에서 함께 고민하였음을 의미한다.

Ⅳ장에서는 이세보의 시조 중 유배시조, 애정시조를 통해 ‘유배생활의 비애와 애정상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세보의 유배시조는 대부분 유배생활의 悔恨, 고독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추위와 흑서, 병고와 해충에 시달리는 육체적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작가는 고통의 원인을 타인이나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不忠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혹독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모든 죄를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이세보의 비판과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지에서의 고통한 감정과 육체적 고통을 자신의 삶 주변에서 늘상 대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동물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유배생활의 비애를 관념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세보의 유배시조는 자신의 모든 유배생활을 시조로 지어 읊으며, 병약한 몸이면서도 解配를 소망하며 잠시라도 괴로움을 잊고자 했던 感傷의인 抒情詩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보는 만 3년 동안의 유배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관직에 오르면서 기녀와의 애정생활을 시조로 읊었다. 이전의 사대부들은 남녀의 애정을 시조로 다루기를 꺼려했으나 이세보는 애정을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하여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相思의 情炎과 이별의 아픔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남훈태평가 계열의 시조들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상투화되어 나타났던 반면, 이세보 시조의 그것은 忠君戀主之詞처럼 연인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애정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중등 국어 ·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들을 분석하여 수록 양상을 살피고, 현 교육과정의 문학 관련 내용 체계를 검토하여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첫째, ‘자기체험을 통한 전통가치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문학 학습에서는 무엇에 대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문학적 내용이나 형상을 체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 정신적 轉移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며 바람직한 활동을 정립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세보는 유배라는 특수한 체험 속에서 정서를 표출하여 자연스럽게 忠孝를 내세우고 있어 문학적 감동마저 준다. 이것은 시조를 통해 조상들의 윤리관과 인생관을 확인하고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는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 함양이라는 시조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둘째,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이세보의 『농부가』와 『달거리시조』에는 서구 생활양식에 길들여진 현대 학습자들이 경험

하지 못한 농경문화와 세시풍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현실비판시조는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한 관료들의 수탈과 부정부패, 그리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 어느 역사책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근본인 농경문화와 세시풍속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가 근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곡과 모순을 통해 현대사회를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향기를 음미하며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을 키워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셋째, 이세보의 시조를 통해 ‘시조문학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이세보의 현실비판시조는 시조창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념의 토로, 4·4조의 경직된 리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1906년부터 1918년까지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매체에 실린 개화기 시조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세보의 시조는 중세에서 근대문학장르로의 전환기적 성격을 내포하는 바, 가장 19세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세보 시조는 고시조는 고시조대로, 현대시조는 현대시조대로 각각 독립적인 양식으로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고시조가 개화기를 거쳐 어떻게 현대시조로 이행해 왔는지 통시적인 안목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세보 시조의 문학세계와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세보의 구체적인 시조 작품들과 현행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였으나 아직은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세보 시조에 관한 총체적인 조명은 앞으로 추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 수록 제재의 형평성 확보와 통시적인 문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세보 시조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세보 시조가 현행 교육과정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기에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역시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일의 과제로 남겨두며 미숙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1. 자료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상문연구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 해설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2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교학사, 2003.
-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 (상·하) , 지학사, 2004.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교학사, 2004.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한국교육미디어, 2003.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도서출판 태성, 2004.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디딤돌, 2003.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민중서림, 2003.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지학사, 2004.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금성출판사, 2003.
- 박호영 외, 문학 (상·하) , 형설출판사, 2004.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국어 (상·하) , (주) 두산, 2002.
- 오세영 외, 문학 (상·하) , 대한교과서, 2004.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두산, 2003.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진동혁, 이세보 시조집 (영인본),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85.
 -----, 주석 이세보시조집, 정음사, 1985.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청문각, 2004.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블랙박스, 2003.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문원각, 2003.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천재교육, 2003.

2. 단행본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98.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연, 2004.
 김영수, 朝鮮朝後期 詩歌論 研究, 일지사, 1989.
 김학성, 韓國古典詩歌의 研究,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0.
 -----,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 출판부, 1987.
 -----, 『18~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詩歌史와 藝術史의 관련양상 II, 보고서, 2002.
 김한식, 實學의 政治思想, 一志社, 1985.
 박노준,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98.
 박성의, 『한국문학 배경연구』, 국어국문학총서, 이우출판사, 1980.
 박철휘, 한국시사연구, 서울 : 일조각, 1980.
 손오규, 山水文學 研究,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심재완, 時調의 文獻的 研究, 세종문화사, 1972.
 -----,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
 유몽인, 어우집 3, 景文社, 1989.
 유약우 著 · 이장우 譯, 중국의 문학기론, 동화출판공사, 1984.
 유협 著 · 최신호 譯, 문심조룡, 현암사, 1994.
 이동연, 19세기 시조 예술론, 월인, 2000.

- 이익성, 韓國의 思想 大全集 24 , 同和出版公社, 1977.
- 정병욱 외, 韓國詩歌文學研究 , 신구문화사, 1983.
- 정약용 · 다산연구회 譯註, 譯註 牧民心書 1권, 창작과 비평사, 1993.
- 조동일, 韓國문학사상사시론 , 지식산업사, 1982.
- 진동혁, 이세보 시조연구 , 하우, 200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상) , 청년사, 1990.
- 한우근, 한국통사 , 을유문화사, 1996.
- 허남춘, 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 월인출판, 1999

3. 논문

- 일반 논문

- 고은지, 「이세보 시조의 창작 기반과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제5집 , 1999.
- 권영민, 「開花期 時調에 대한 檢討」, 學術院論文集 15 , 大韓民國學術院, 1976.
- 김옥순, 「가곡원류계 작품집의 편찬의식에 관한 고찰」, 이화어문논집 8 , 1986.
- 김준옥, 「이세보 시조의 두 경향과 문학사적 위치」, 시조학논총 제13집 , 한국 시조학회, 1997.
- 김학성, 「시조의 시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6집 , 1991.
-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분’의식과 정서 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20 ,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0.
- , 「이세보의 애정시조의 특질과 그 시조사적 위상」, 어문논집 33 , 민족어문학회, 1994.
- 손오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학회 제14집 , 1997.
- 신연우, 「16世紀 士大夫時調의 교술적 성격과 후기의 변모」, 우리어문학회, 1997.
- 오종각, 「이세보의 연시조 연구」, 한국시가학회 제5집 , 1999.
- 윤영옥, 「이세보의 農歌放」, 시조학논집 제13집 , 한국시조학회, 1998.
- 이복규, 「박지원과 정약용의 대비적 고찰」, 東方學 第2輯 , 한서대학교 동양고전 연구소, 1996.

최미정, 『조선 초·중기 여성화자 국문시가와 풍류』, 어문학 64, 시문학회, 1998.

허남준, 『士林派 詩歌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국문학보 제11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2.

- 학위 논문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예술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난숙, 『이세보시조의 다양성과 대상인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박길남, 『조선후기 양반시조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신충범, 『이세보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엄국현, 『詩에 있어서 事物認識』,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오종각, 『이세보 시조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동연, 『19세기 시조의 변모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정만섭,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友道와 友道論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정홍모, 『19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진재식, 『이세보 시조 연구 - 주제분석 및 자연소재 ‘꽃’, ‘나무’, ‘새’의 분석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최현기, 『이세보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홍정원, 『철종대 세도정치 연구-안동김씨의 집권과 그 구조적 특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Literary World and Educational Signification of Lee Sae-Bo's Sijo

Lee Ji-Hyu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Lee Sae-Bo was a civil minister and a royal family in late Joseon as well as he was a poet who left total 462 works of old sijo(Korean ancient poems) so that reported the largest number in sijo. Previous literatures about sijo of Lee Sae-Bo mostly had focused on a sijo of criticism against reality or a love si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bout literary world of Lee Sae-Bo's sijo comprehensively and to consider educational signification.

In chapter II, as basic work for understanding literary world of Lee Sae-Bo's sijo, this study was to examine his career and trend of sijo in 19th century. Lee Sae-Bo did political activities smoothly while had gone through several difficulties such as the exile into Sinjido by a family in power, Andong Kims. Life during the exile made him be critical toward reality. Sijo in 19th century attracted wide readers with compliance with maturity of the city and prosperity of the amusement. At that time, a lot of anthologies, which were categorized into Ka Kok Wollyu(歌曲源流) and Nam Hun Tae Pyeong Ka(南薰太平歌), were

emerged and the gentries such as Cho-Hwang and Lee Sae-Bo did creative activities lively. The gentries enjoyed to create sijo using Chinese writing as hobby, while Lee Sae-Bo created sijo using Korean and published private collection of sijo; it showed his love toward Korean poetry.

In chapter III, ethical sijo, sijo of criticism against reality and farmer's song wer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of ethics and recognition about reality of the gentry. Sijo of Lee Sae-Bo reflecte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ng ethnic customs, and it showed that he recognized literature as the container of including moral values and used it as instructing world. Moral sijo reflected ideology of Confucianism and moral consciousness, which tried to keep social system of Joseon dynasty. Sijo of criticism against reality accused the sad situation of farmers, who were exploited, in the perspective of realistic recognition for the people, and illustrated the governor who tried to criticize and amend the greed and atrocity of corrupt officials. Farmer's song,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encouraged agriculture, reflected that Lee Sae-Bo recognized traditional agricultural living style as the culture of community's life and he fully understood difficulties of farmers.

In chapter IV, sadness of life during the exile and loving affair in sijo of Lee Sae-Bo were looked about. Lee Sae-Bo represented directly his loneliness and physical suffering in the place of exile using materials that were able to be found commonly in his life. In addition, love sijo of Lee Sae-Bo treated positively the motif of 'love', which was taboo in the gentries under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Generally, his sijo sang the sadness of parting, and it showed that excessive exposure of the sadness, which was hard to deal with, was similar with sijo of Nam Hun Tae Pyeong Ka(南薰太平歌). Such sijo of Lee Sae-Bo is significant in the point of freeing itself from ethics of Confucianism under the society that Confucianism was dominant and representing frankly private experiences and emotion, which was resulted from by such experiences.

In chapter V, this study considered educational signification based on literary world of Lee Sae-Bo's sijo. For it, this study suggested first educational goals

related to literature in the 7th curriculum, analyzed works of sijo which were included in secondary 『Korean』 textbook and 18 kinds of 『Literature』 textbooks, and then delineated the result using the table.

Educational signification of Lee Sae-Bo's sijo in content system related to literature in current curriculum was examined in three areas: 'transmission of traditional values through self-experiences', 'understanding about ancestral lif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literary history of sijo.' Sijo of Lee Sae-Bo, which represented emotion like loyalty and filial piety in special experience of exile, showed ancestral ethics. Sijo of Lee Sae-Bo also showed fetters and contradictions in transitional period toward modern such a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of officials by Sedochongchi(勢道政治; government of near relative of king and retainers with power), disorder of three governmental affairs and etc, which will be useful to cultivate the ability of understanding the history properly. In addition, sijo of Lee Sae-Bo played role like the bridge of connecting to sijo of the flowering time, so that it showed the process that old sijo transited from modern sijo to present sijo. Therefore, the problem of sijo in 『Korean』 and 『Literature』 textbook, which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the periods, the writers and the subjects, should be complemented. From it, educational effect of enabling to understand the literary history of sijo diachronically can be expect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8.